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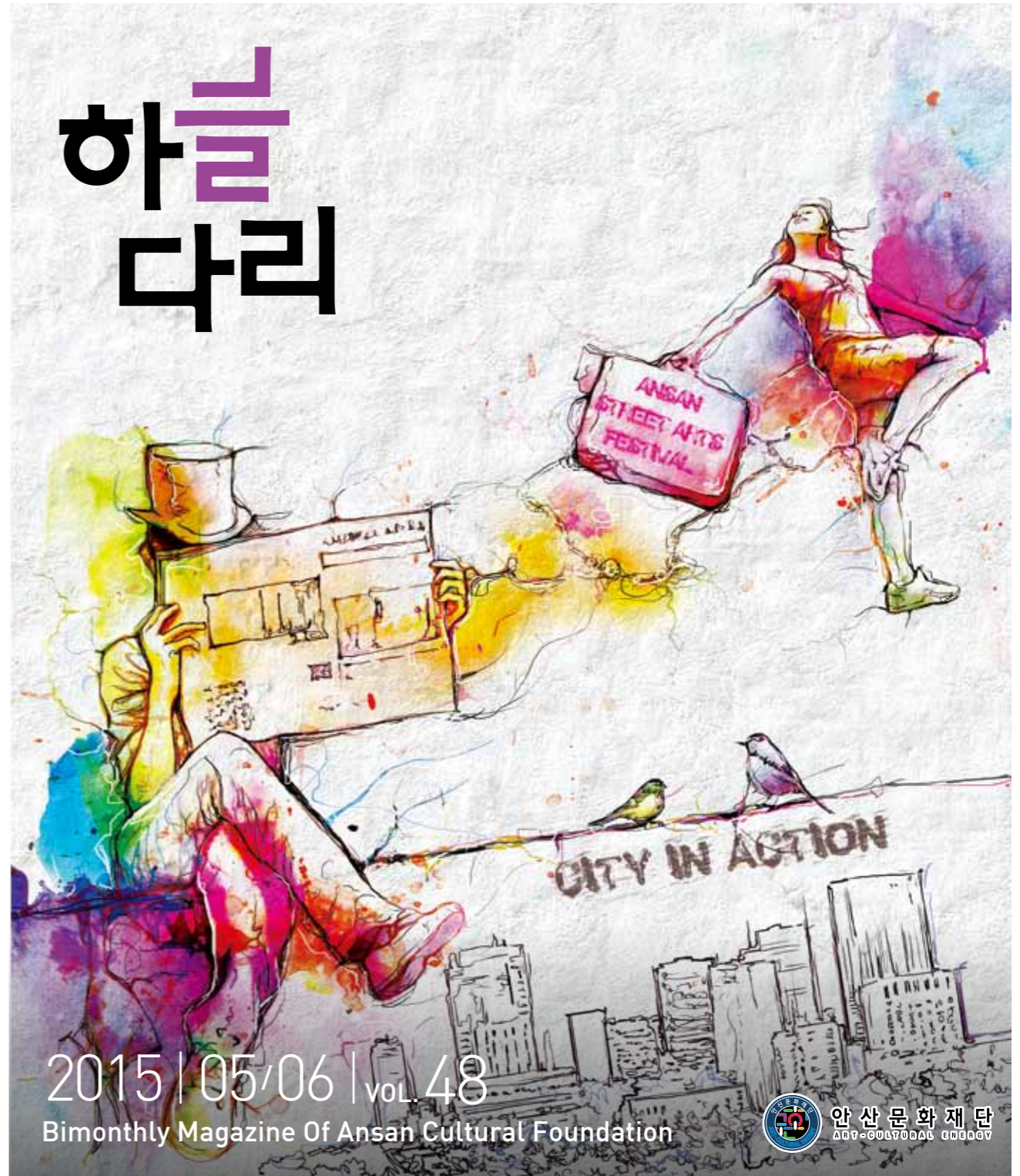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한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하늘 다리



2015 | 05/06 | vol. 48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오월의 시

- 이 해인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속에 퍼 울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속에 접어둔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누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 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SPECIAL

- 08 인사말 _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규동
- 10 인터뷰 _ 경기도미술관장 최은주
- 14 ASAC 초대석 _ 배우 박해수, 박훈

ASAC STAGE

- 20 연극 _ 유도소년
- 22 공연 _ 임동혁 with 스티븐 린
- 24 공연 _ 변신이야기 : Metamorphoses
- 26 아침음악살롱 _ 아침음악살롱2
- 28 공연 _ 인간의 리듬
- 30 공연 _ 2015 ASAC 공연예술제

CULTURE TREND

- 38 테마가 있는 미술 _ 에드가 드가
- 44 테마가 있는 공연 _ 무대와 스크린
- 48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 54 칼럼 _ 파괴적 행동장애/반항성장애의 이해와 집단음악심리치료의 역동활용방법

특집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 60 안산국제거리극축제

NEWS

- 70 단원 김흥도와 떠나는 예술여행
- 72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전

공연리뷰

- 76 끝내 울컥한 김창완

2015. 05 (MAY)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기획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 기획 안산국제거리극축제
3 기획 안산국제거리극축제	4	5	6	7 대관 안산시통장연수 09:30/해돋이극장	8 대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 13:00/달맞이극장	9
10	11	12	13 대관 정신건강 연극공연 19:00/달맞이극장	14 대관 시립국악단 교류음악회 19:30/해돋이극장	15 대관 피아체레앙상블 정기연주회 19:00/달맞이극장	16 대관 김보람 바이올린독주회 17:00/별무리극장
17	18	19	20	21 기획 유도소년 20:00/달맞이극장	22 기획 유도소년 20:00/달맞이극장 대관 파워레인저 안산국악원 우리소리의향기 11:00,14:00,16:30/해돋이극장 대관 시흥YMCA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5:00/별무리극장	23 기획 유도소년 15:00,18:30/달맞이극장 대관 파워레인저 11:00,14:00,16:30/해돋이극장 대관 시흥YMCA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5:00/별무리극장
24 기획 유도소년 15:00/달맞이극장 대관 파워레인저 11:00,14:00/해돋이극장		26	27 대관 뮤지컬퍼포먼스 하트비트 13:00/달맞이극장	28	29 대관 안산시청소년종합예술제 09:00	31 대관 안산시청소년종합예술제 09:00
31 기획 다양성영화관 '메밀꽃..' 15:00/별무리극장						

2015. 06 (JUNE)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기획 무대야놀자 10:20,11:30/달맞이극장	4 기획 무대야놀자 10:20,11:30/달맞이극장	5 기획 분노의포도 17:30/별무리극장 기획 무대야놀자 10:20,11:30/달맞이극장	6 기획 분노의포도 17:30/별무리극장 대관 피터팬 11:00,14:00,16:00/달맞이극장
7 기획 분노의포도 17:30/별무리극장	8	9	10 기획 안녕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달맞이극장	11 대관 시립합창단 50회 정기연주회 19:30/해돋이극장	12 기획 아버지의 방 17:30/별무리극장 대관 어린이캐츠 11:00/달맞이극장	13 기획 아버지의 방 17:30/별무리극장 대관 어린이캐츠 11:00,14:00/달맞이극장
14 기획 아버지의 방 17:30/별무리극장 대관 어린이캐츠 14:00/달맞이극장	15	16 대관 CBS통해아콘서트 19:00/해돋이극장	17	18	19 기획 우리 하영이 17:30/별무리극장 기획 변신이야기 20:00/달맞이극장	20 기획 우리 하영이 17:30/별무리극장 기획 변신이야기 15:00,19:00/달맞이극장
21 기획 우리 하영이 16:00/별무리극장	22	23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13:30/해돋이극장	24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13:30/해돋이극장	25 기획 아침음악살롱2 11:00/별무리극장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13:30/해돋이극장	26 기획 누가 살던 방 17:30/별무리극장 기획 인간의 리듬 20:00/달맞이극장 대관 안양축협 여성문화제 10:00,13:30/해돋이극장	27 기획 누가 살던 방 17:30/별무리극장 기획 인간의 리듬 17:00/달맞이극장
28 기획 누가 살던 방 17:30/별무리극장	29	30 대관 오울자, 백남무용단 정기공연 19:00/달맞이극장				

나가 박경찬이여!
박경찬이라니께!!

유도 창작극 소년



2015.5.21(목) - 5.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목-금요일 8시, 토요일 3시·6시 30분, 일요일 3시

SPECIAL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08 인사말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규동

10 인터뷰
경기도미술관장 최은주

14 초대석
배우 박해수, 박훈



“문화와 예술로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안산문화재단 만들겠다”

하늘다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그려나가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지난 3월 취임한 이규동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삶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워지고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은 우리 시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소양과 재능, 감성을 키워드릴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동기 부여와 활력을 불어넣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관은 고객들이 문화예술을 진지한 여가(시리어스 레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기회와 장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공연감상 기회 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감성과 잠재된 끼를 발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각자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산문화재단은 ‘정해진 명사(名詞)’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動詞)’로 활동할 것이며, 예술의전당을 이미 ‘지어진 공간(空間)’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工場)’으로 경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로 향하는 조용한 물결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같이 꾸는 꿈은 가능성이며,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는 그 길을 하늘다리 모든 독자들, 그리고 76만 안산시민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 대표이사

2015. 3. 12.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방송학 수료

현) 파주출판도시 자문위원

전) 파주출판도시 기획실장

전) 서울시 송파구청 정책연구단장

전) 서울예술대학 기획처장

산학협력단 단장

전) 서울예술의전당 기획실장



경기도미술관장 최 / 은 / 주

❶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경기도미술관장 부임을 축하드리며, 이에 대한 소감을 여쭙보고 싶은데요.

▶ 1989년부터 26년 간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해 오면서 미술관 각 영역의 업무를 통합하고 주관하는 관장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미술관장의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고 잘 해보아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미술관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경기도미술관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❷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다양한 이력을 쌓아 오신 것은 물론,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의 미술가로서 창조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작업들을 다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시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사실 작품 발표는 1989년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중단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긴 시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작품제작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큐레이터로서 활동한 이후에는 오로지 작가 및 작품 연구, 전시기획에만 몰두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제 자신을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그림 그리면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의 행복한 체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감냄새, 종이와 붓의 느낌, 사물을 보는 시각적 체험 등등이 쌓여, 큐레이터로서 작품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미술작품을 대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제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술작품을 보는 일이 언제나 설레고 즐겁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작품을 볼 때조차 그 작품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큐레이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채집하고 그 채집된 이야기들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의미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싫증내지 않고 많은 작업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그리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독창성에 있습니다. 예술의 독창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 보다 많은 대중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의 관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❶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경기도미술관 운영에 대한 특별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와 가장 주안점을 두실 부분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미술관 개관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우선 경기도미술관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랑호수를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주변 환경, 배의 모양을 본뜬 매력적인 건축물, 숫자는 충분하지 않아도 한국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소장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1,200만의 잠재적 관람객인 경기도민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미술관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인력문제로 건축물 관리조차 힘겨운 상태로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소장품도 늘어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 관람객으로부터 점차 외면당하는 미술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미술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큐레이터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경기도미술관이 개관 당시 기치로 내걸었던 경기도 중심 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관의 내·외관을 정비함으로써 원래 미술관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 감각을 되살리고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 큐레이터들의 전시기획안을 다듬고 발전시켜 미술계의 중요 이슈를 다루면서도 대중적으로도 친화력 있는 전시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기획되고 있는 전시 중에 가칭 <경기구경>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경기도의 명승을 그린 작품들을 현대 작품뿐만 아니라 전통과 근대 작품에서도 찾아내어 전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관람객의 관심

을 유발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되고 있는 전시들의 내용을 심화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을 참여시키고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젊은 작가들의 활발한 움직임도 수용하면서 대중적으로는 보다 넓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등 전시 기획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은 경기도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특별기획전 및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을 경기도미술관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❶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미술관이 안산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안산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세계적 미술관들의 운영을 살펴볼 때 그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대감과 문화예술적 가치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사례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의 중심 미술관이지만 안산시에 위치함으로써 안산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기획될 때마다 안산 시민의 관심이 모여들고,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이 안산시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응하는 그런 미술관,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에서 비롯되는 감동을 선사하는 미술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안산 시민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미술관이 되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❶ 시민들은 물론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시는 미술가분들의 관심도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술가분들을 위한 나름의 준비가 있으신지요?

▲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작가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성, 수원, 안양, 양평, 파주, 헤이리 등 경기도의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훌륭한 작가 분들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 분들 중에는 가히 이 시대의 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저는 작가들이 외면하는 미술관은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훌륭한 작가 분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경기도미술관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초청강연, 출판물 기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분들의 예술적 성과를 드러내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❶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라는 거대한 지역적 특성상 그만큼의 문화적 인프라와 문화적 다양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공감과 소통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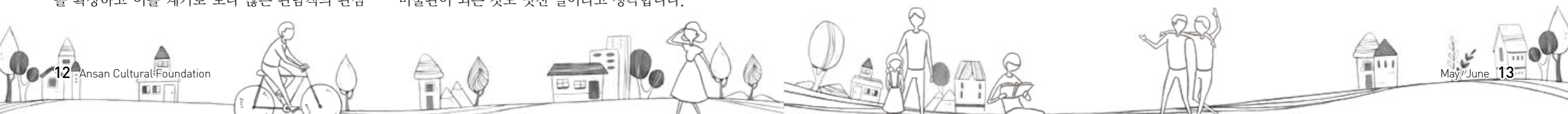
▲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인프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요즘 경기도의 길, 자연, 문화와 예술 등을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정말이지 그 범주가 너무도 광범위하더군요. 이것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고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의 변화무쌍함과 경기도의 이런 특이성이 접목된다면 세계미술계에도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공감과 소통의 철학이 경기도와 경기도미술관에서 제시되기를 저 자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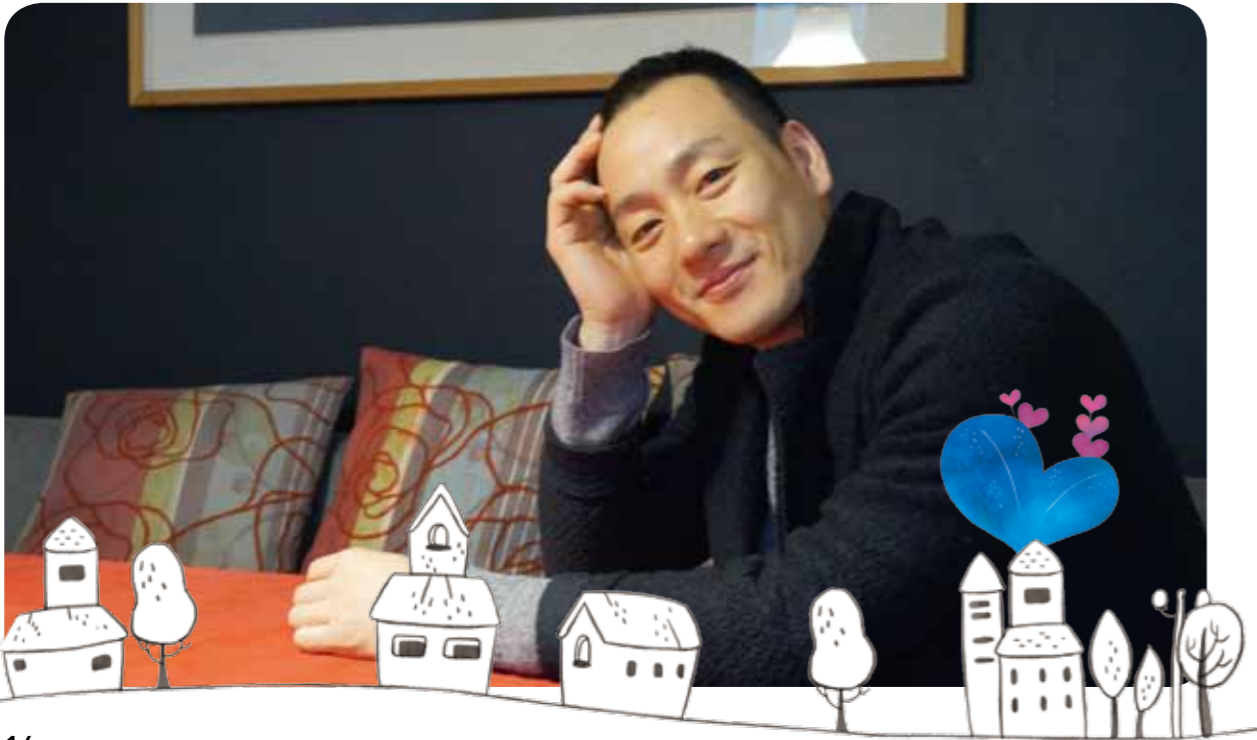
❶ 미술이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혹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숙하게 미술을 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술관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 중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의 작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인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하다보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미술작품을 보는 시각을 조금씩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즘 미술관에는 정말이지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강연도 들어보시고 큐레이터, 작가도 만나보시면 어느 틈엔가 그 난해한 미술작품에 친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❶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문화재단과 어떠한 방법으로 교류할 계획이신지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안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극 축제, 크로키 교육 등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술과의 접점을 찾으면 요즘 대세인 융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극+미술, 무용+미술, 음악+미술 등을 상상한다는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청춘의 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극 <유도소년>의 배우

박해수 / 박훈

공자가 말했다. “이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거하는 자만 못하다.”

놀라운 관객몰이로 호응을 입증하고 있는 연극 <유도소년>은 유도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소년 경찬의 이야기이다. 공동으로 경찬 역을 맡은 배우 박해수와 박훈은 소년이 '즐김'의 문을 두드리기까지의 가슴 뛰는 여정을 보여준다.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청춘의 사전적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찍이 시인은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고 했고 노인 같은 10대가 있는가 하면 20대 같은 노인도 있으므로.

인생에서 청춘의 기준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성장’에 있다고 본다. 꿈꾸기를 두려워할 때, 마음의 성장을 멈췄을 때 청춘은 끝난다. 꿈꾸는 것, 마음을 키우는 것은 가슴 설레는 것이지만 세상의 시선에 흔들림 없이 지극히 순수한 열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일 터이다. 연극 <유도소년>은 자신의 꿈을 꾸기 전에 꿈을 강요당하는 이즈음의 청춘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신명나는 에너지와 따뜻한 울림을 준다.

‘차가운 불’과 ‘뜨거운 물’의 두 소년

연극 <유도소년>은 1997년 전북체고 유도선수 경찬이 고교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때 국가대표 상비군이 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고교 유도 선수 경찬. 이기는 경기에 익숙했던 그는 뜻밖의 부진으로 슬럼프에 빠지는데 메달과 대학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걱정에 방황한다. 고교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서울에 온 그는 배드민턴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소녀의 결을 지키는 복싱 선수와 충돌한다. 무엇하나 마음 같지 않은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을 향해 질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지난 해 막을 올렸는데 그 에너지와 울림의 자기장은 컸다. 지난해 4월 초연 당시 이례적으로 전 회차 매진 사례와 평균 객석점유율 104%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지난 1월 진행된 프리뷰 티켓 예매에선 2분 만에 6회차

900석 전석이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상의 잣대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꿈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는 유도 경기장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한 무대와 무대를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활기 넘치는 연기로 전해진다.

올해 나이 서른다섯, 동갑내기 배우 박해수와 박훈은 홍우진과 함께 공동으로 주인공 경찬 역을 맡고 있다. 1997년 당시 고교생이었던 두 사람은 가슴속 소년을 환기한다. 박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박해수는 처음 경찬으로 무대에 선다. 배역이 배역인 만큼 두 사람은 매일 유도 연습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탄탄한 체육인의 이미지가 전해졌다. 매번 무대 위의 인물로 변신하는 것이 배우의 숙명이라지만 30대에 10대, 그것도 유도선수를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두 사람은 그저 매일 유도를 연습할 뿐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도 쉽지 않아요. 큰 부상을 조심하면서 작은 부상을 토닥이고 있어요. 유도는 상대와의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힘을 풀고 상대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데 그때 작은 엇박자만 생겨도 다쳐요. 연습하면서 작은 부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죠. 득음을 위해 상대결절을 불사하는 소리꾼처럼 부상을 두려워하기 보단 더 나은 연기의 거름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강렬한 눈빛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싣는 말투가 인상적인 배우 박훈의 이야기에 박해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저 빙긋 공감의 웃음을 짓는다. 그는 “인터뷰할 때 훈이와 함께 한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전 말수가 적기도 하고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라고 말하자 박훈은 “해수가 낮가림이 있어서 그렇지 반전매력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술 마시면 귀여움이 폭발하죠.”라고 설명했다. 그가 냉철한 외모에 강렬한 눈빛의 ‘차가운 불’이라

면 박해수는 물처럼 유유한 모습에 언뜻언뜻 열정을 뽐어내는 ‘뜨거운 물’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소중한 것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연극 무대에 서는 배우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꿈과 동일시되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세상의 잣대와도 거리감은 상당하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왜 연극배우가 되었을까? 박훈의 날카로운 눈빛에 자못 걸기가 어렵다.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서 자란 전 21살 때 처음으로 극장에서 <쉬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처음 보는 큰 화면에 펼쳐지는 영화에 압도됐죠.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저기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탁 꽃힌 겁니다. 전교 1등으로 부모님의 기대가 컸던 형이 중 1

때 자살을 했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른 아이’로 살아온 제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백제예술대 뮤지컬학과에 진학한 그는 군 제대 후 군복을 벗자마자 6만원을 들고 상경해서 배우의 문을 두드렸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서울 태생인 박해수는 고교 연극반시절 알폰스 도데의 ‘별’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배우의 꿈을 품었고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고교 연극반 무대에서 막연하게나마 배우의 꿈이 시작되었어요. 배우는 치열하게 인문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죠. 부단히 몸과 마음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기까지 고통스러운 부분



이 있어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세상의 물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스스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매번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면서 삶을 배운다는 점에 감사해요. 전 원래 승부욕이란 게 없었는데 경찬 역을 하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유도소년 경찬은 유도에 흠뻑 빠지면서 잘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대학 입학과 메달 획득의 수단이 되면서 슬럼프에 빠진다. 순수했던 꿈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배우는 소중한 것은 밖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켜가고 있는 듯했다.




넌 달라, 꿈이 있어!

두 배우는 대학로에서 박동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통한다. 박해수는 연극 <도화만발>, <더 코러스-오이디푸스>, <맥베스>, <프랑켄슈타인> 등에서 발군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박훈은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완전보험 주식회사>, 연극 <모범생들>, <바람난 삼대> 등에서 특유의 에너지를 뽐내었다.

대학로의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지만 배우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다. 배우들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고 끼를 맘껏 발휘할 놀이터로써의 장도 열악하며 이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생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박훈이 지난 해 다작을 하자 주위에서 ‘결혼하나?’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해야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배우라는 꿈을 변함없이 키워가고 있다. 자신들의 심장을 여전히, 유일하게 뛰게 하는 꿈이기에. “무작정 서울에 왔을 때 고향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셋방의 보증금을 마련해줬죠. 그때 한 친구가 ‘넌 우리와 달라, 넌 꿈이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힘들 때 떠올리며 위로받는 말이죠. 5월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유도소년>의 막을 올리는데 배우로서 미력하나마 안산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하여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 프로스트가 노래한 ‘가지 않은 길’을 걷는 두 배우는 그 혼 혼한 웃음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STAGE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 연극
20 유도소년
- 공연
22 임동혁 with 스티븐 린
- 공연
24 변신이야기 : Metamorphoses
- 아침음악살롱
26 아침음악살롱2
- 공연
28 인간의 리듬
- 공연
30 2015 ASAC 공연예술제

ASAC기획공연
연극
유/도/소/년



압도적인 매진 행렬, 최고의 화제작을 만나다

지난 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공연되어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프랑켄슈타인>에 이어, 현재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품 <유도소년>이 'ASAC 우수연극'으로 안산을 찾아온다. 2014년 초연 이후 '전 회차 매진'이라는 창작극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둬와 동시에 6개월 만에 재공연인 2015년 공연에서도 연이어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판 '응답하라 1997',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한판 승부!

<유도소년>은 1997년, 전북체고의 유도부 주장 '경찬'이 전국고교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서 만나게 된 배드민턴 선


수 '화영'과 복싱 국가대표이자 라이벌로 등장하는 '민욱'과의 사랑과 우정,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90년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법한 '추억'에 기초하고 있으며 '삐삐', '씨티폰', '워크맨' 같은 소품들과 함께 들려오는 당시의 히트곡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를 방불케하는 무대 위의 스포츠, 그리고 '땀의 감동'

<유도소년>에는 유도, 복싱,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 종목이 등장한다. 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전 배우들이 실제 선수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부상과 싸우며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소화해

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쏟아내는 굵은 땀방울은 이러한 캐릭터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프랑켄슈타인>의 박해수 합류! 더욱 강력해진 <유도소년>들이 모였다

연극<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역으로 안산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박해수가 이번에는 고등학생이자 유도부 주장 '경찬'역으로 돌아온다. 이 밖에도 현재 공연계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는 '박훈', 지난 해 인기를 얻은 드라마 <미생>에서 '인턴 김석호' 역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조현식을 비롯해 차용학, 김호진, 박성훈 등 공연계에서 주목 받는 배우들이 총출연하여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I 시놉시스

경찬은 한때 도 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던 고등학교 유도선수였다. 하지만 슬럼프가 오면서 점점 운동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경찬은 이제 유도로 대학조차 가기 힘들게 된 상황에서 신입생 후배들 때문에 엉뚱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학교에서 특명을 받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한다.

전국대회에 참가한 경찬은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하는 상황에서 첫사랑 화영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화영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복싱 국가대표 민욱의 등장으로 생각과 다르게 일이 커진다. 이 모든 좌충우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찬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마지막 대결을 치르게 되는데...

I 언론리뷰

지난해 연극계에 흥행 다크호스는 단연 '유도소년'이었다. - 동아일보

현재 <유도소년>은 객석 점유율 100%다. 날마다 매진이다. 청소년부터 30대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 경향신문

관람 내내 유쾌하고 설레고 뜨거웠다. 창작 연극 '유도소년'은 '청춘을 위한 송가'라고 할만한 수작이다. - 뉴시스

I 관객리뷰

90년대를 배경으로 귀가 즐거운 가요들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시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어마무시한 웃음으로 무장한 연극. 그야말로 강력추천! (ifullmoo**님)

웃으며 공연을 보는 내내 한편으로는 뭉클했다. 90년대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무대와 배우들의 열연 (ryan7**님)

연극 <유도소년>

날짜.
2015. 5. 21(목)~5. 24(일)
4월 5회 공연 (115분 소요)
목·금요일 8PM 토요일 3.6:30PM
일요일 3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14세 이상 관람가)

할인.
3인이상 가족할인 30%
ASAC연극가족할인 30%
문화패스할인 40%

출연.
박훈, 박해수, 우상욱, 김호진, 이석, 양경원
박보경, 정연, 박민정, 차용학, 오의식, 조현식,
박성훈, 박정민, 임철수, 신창주

작_박경찬, 이재준 | 연출_이재준
제작_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창작하는 공간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넷 1544-1555
단체관람 031-481-4025



ASAC기획공연

임동혁 with 스티븐 린

슈베르트 판타지



신동에서 거장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피아노 듀오 공연

“임동혁은 황금 손은 물론 그 이상을 가졌어요. 순간의 음악에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췄으니까요”

- 마르타 아르헤리치

2013년 12월호 <객석> 기사 발췌

아티스트로서의 강한 고집과 혼, 깊이와 테크닉, 청중을 집중하게 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의 2015년 프로젝트는 ‘둘Two’을 위한 무대, 피아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조우이다.

드라마 <밀회>의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판타지 외 두 대의 피아노가 벌이는 환상의 무대


임동혁은 슈베르트와 피아노라면 놓칠 수 없는 레퍼토리, 네 손을 위한 환상곡을 시작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라벨을 연주한다. 지금까지 어느 곳보다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감동을 선사해 온 임동혁이기에, 그의 팬이라면 더욱 놓칠 수 없는 레퍼토리다. 특히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은 지난 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드라마 <밀회>에서 선재와 혜원이 연주한 곡이기도 하다.

임동혁과 슈퍼 루키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이 선사하는 절정의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계의 대표스타 임동혁은 부조니, 하마마쓰, 롱-티보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혜성과 같이 등장하였다. 이후, 킨 엘리자베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임동혁을 총애하는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

의 추천으로 클래식 레이블의 명가 EMI를 통해 데뷔 음반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상’을 수상하였다.

임동혁은 샤를르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동혁과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는 클래식계의 라이징 스타 스티븐 린이다. 스티븐 린은 2013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우승, 2014 루빈슈타인 콩쿠르 이후 급부상 중인 피아니스트로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거쳐 이미 13세의 나이로 뉴욕 필하모닉과 에버리 피셔 홀 데뷔 무대를 치러낸,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미래를 기대하게 했던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이미 2012년 빌헬름 카펠 국제 콩쿠르, 줄리아드의 지나 박하우어 콩쿠르 등을 통해 바로크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피아노 음악 전반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왔다. 5년 만에 안산을 찾는 임동혁, 신동에서 거장으로 더욱 성숙된 그의 연주가 기대된다. 

<임동혁 with 스티븐 린 _ 슈베르트 판타지>

날짜.
2015. 6. 19(금) 8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출연.
임동혁, 스티븐 린

ASAC기획공연


변신이야기 : Metamorphoses

세계가 사랑한 연극,
누구나 한번은 꼭 봐야 할 연극,
그리스·로마 신화를 소재로 한
대서사시 <변신 이야기>

연극<변신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동명 서사시 <변신 이야기>를 미국의 연극인 ‘매리 짐머맨’이 재구성한 작품이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10개의 신화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풀어냈다. 2002년 브로드웨이 진출과 동시에 토니상 ‘연출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4개 부문을 수상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며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번 국내 초연 공연은 ‘필로우맨’, ‘날 보러 와요’ 등 화제작들을 연출했던 변정주 연출이 맡아 선보이게 된다.

무대에 세워지는 거대한 수조, 그리고 극장을 채우는 라이브 음악 <변신이야기>의 무대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수조가 들어서고 무릎에서 발목 높이까지의 다양한 깊이의

물이 채워진다. 수조는 10가지 신화 속에서 바다가 되기도, 수영장이 되기도 한다. 물이 가지고 있는 ‘태초의 신비’와 ‘생명의 근원’이라는 느낌을 통해 신화의 신비로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국악-월드뮤직 그룹 ‘고래야’의 라이브 연주는 무대, 배우들의 변신을 지원하는 캐릭터로 극을 채우게 된다.

75개의 배역을 연기하는 9명의 배우들, 그들이 선사하는 ‘변신’
극 중 10가지 신화에 등장하는 75개의 배역을 9명의 배우들이 평균 7~8개씩 소화하게 되는데, 신에서 인간으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등 다양한 감정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초현실과 현실을 오가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안무가 함께 어우러져 ‘현대적인 고대 연극’의 모습을 창조한다. 

변신이야기 : Metamorphoses

일정.
2015. 06. 19(금) ~ 2015. 06. 20(토)
금요일 8PM 토요일 3,7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R석 33,000원 S석 22,000원

출연.
김준원, 정태민, 손지윤, 오정택, 이형훈
전성민, 이효림, 유주혜, 경지은

원작_매리 짐머맨 Mary Zimmerman
연출_변정주
제작_노네임씨어터컴퍼니
주최_(재)안산문화재단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관람 031-481-4025



아침음악살롱2

피아니스트
최문석

누구에게나 **첫 사랑**은 있다!


당신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게 서툴렀기에 안타까웠던, 그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빛나는 기억. 안산문화재단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인 아침음악살롱의 두 번째 무대는 '누구에게나 첫 사랑은 있다'라는 주제로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별무리극장에서 진행된다. 첫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영상, 그리고 영화 속 명대사들과 함께 꾸밀 이번 무대는 영화평론가 허남웅과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한다.

피아니스트 최문석은 6세 때 피아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접했고 고등학교 시절엔 '록' 음악과 기타를 연주했으며, 군생활을 하는 동안 재즈와 편곡기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 연주 활동은 반도네온 고상지와 함께 하고 있으며, 제3세계 음악과 탱고라는 장르까지 섭렵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는 타고난 매력적인 목소리까지 겸비하고 있다. 최문석의 음악은 한없이 감성적이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최문석의 출현은 싱어송 라이터가 점점 귀해지는 요즘 케이 팝 분야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귀한 존재이다.

해설을 담당하는 영화평론가 허남웅은 <판지일보>와 <FILM2.0> 영화팀장,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영화의 발견>(채널 SCREEN), <호란의 파워 FM>(SBS 라디오), <사랑의 책방>(KBS3 라디오)에 출연 중이며 <아레나>, <시사저널>, <맥스무비>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보는 첫 사랑, 그리고 따뜻하고 애잔한 OST

영화 러브스토리, 시네마천국, 냉정과 열정사이, 건축학개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영상과 연주 등을 통해 만나본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가슴이 아릿해지는... 무수히 마음 졸이던 애틋한 시간들. 당신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을 아련한 추억여행 '누구에게나 첫 사랑은 있다'. 이제 그 아련한 시간 속으로 추억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영화평론가
허남웅

아침음악살롱2

일정.
2015. 6. 25 (목) 11A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공연 후 다과 제공)

관람료.
전석 18,000원

출연.
피아니스트 최문석
영화평론가 허남웅

ASAC기획공연

인간의 리듬

**(재)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춤(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함이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걷고 또 일하는 것도 리듬이고 춤이다.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안무가 김보람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개성과 안무력으로 이미 한국 현대무용계의 대표스타로 자리매김한 단체로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발레, 힙합, 재즈댄스, 한국무용 등 다양한 춤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작품에서 어떠한 예술적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우리의 '몸'을 통해 음악과 춤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우면서 진실된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4년 서울아트마켓 공식초청작,
한국 춤 비평가상 작품상 수상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4월

별무리극장에서 공연한 <공존&실수>에 이어 다가오는 6월 26일, 2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2014년 한국 춤 비평가상을 수상한 '인간의 리듬'을 공연한다. 음악의 색깔에 따라 적절하게 변주되는 댄서들의 움직임 조합과 춤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절묘한 타이밍, 댄서들의 출중한 움직임이 결합된 작품으로 경쟁에 내몰린 보통 사람들의 반복된 일상을 위트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국내 초청공연으로 초연 이후 부산국제무용제, 서울아트마켓 공식 초청, 한국을 빛낸 해외무용스타 초청, 태국 국제무용 축제 등에 초청되어 공연된바 있다.

**일반인의 삶도 춤이 될 수 있다.
우린 모두 춤처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춤'처럼 살아가고 있다. 몸과 춤의 관계 속에는 특정한 리듬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도 개인만의 리듬이 있

다.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삶'이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리듬을 잃은 채,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리듬을 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비애를 표현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속하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개인의 리듬보다는 이미 시스템화 된 리듬을 쫓아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리듬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용, 춤이라는 개념을 탈피한 '이해되는 춤'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내용을 몰라도 재미있고, 알면 더 재미있는 작품 '인간의 리듬'. 동물로 태어나 인간이 되고, 현실에 적응하게 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을 오로지 몸과 '춤'만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용이 아닌 춤을 온전히 느껴보자! 



ASAC기획공연 <인간의 리듬>

<p>날짜. 2015. 6. 26.(금)8PM 2015. 6. 27.(토)5PM</p> <p>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p> <p>출연. 남현우, 박시한, 김보람, 장경민, 구교우</p>
---	--

2015 ASAC 공연예술제

안산문화재단의 'ASAC공연예술제'는 지역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와 창작의 지를 높임과 동시에 재단과 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 활발한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올해 5회째 개최되는 ASAC공연예술제는 보다 넓은 시야와 열정, 그리고 창의력 있는 공연 작품

들을 발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재단의 지속사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예술단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창작활동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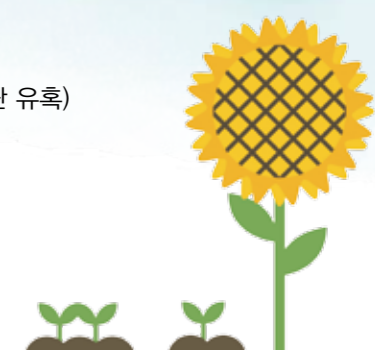


공연개요

- 공연명 : 제5회 2015 ASAC공연예술제
- 공연일정 : 2015년 6월 5일 ~ 7월 5일(단체당 3회)
- 공연장소 : 별무리극장
- 공연단체 : 안산시 소재 공연단체로 구성 (총 5개단체)
(극단 걸판, 극단 예지촌+소금창고+소풍, 극단 이유, 극단 오아시스, 극단 유혹)
- 주최 : (재)안산문화재단
- 관람료 : 전석 15,000원
(청소년_5,000원, 예술인_10,000원, 10인이상 단체_10,000원)

공연일정

연번	공연단체	공연명	날짜	시간	장소	런타임
1	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	6.5(금)~6.7(일)	(금)19:30 (토)19:30 (일)16:00	별무리극장	100분
2	극단 예지촌 소금창고 소풍	아버지의 방	6.12(금)~6.14(일)	(금)19:30 (토)19:30 (일)16:00	별무리극장	80분
3	극단 이유	우리 하영이	6.19(금)~6.21(일)	(금)19:30 (토)19:30 (일)16:00	별무리극장	70분
4	극단 오아시스	누가 살던 방	6.26(금)~6.28(일)	(금)19:30 (토)19:30 (일)16:00	별무리극장	90분
5	극단 유혹	하고픈이야기2	7.3(금)~7.5(일)	(금)19:30 (토)19:30 (일)16:00	별무리극장	80분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 : 1902. 2. 27. ~ 1968. 12. 20.) 원작의 고전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가 '극단 걸판'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월과 7월 두 차례 '산울림 고전극장'의 프로그램으로 공연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작품을 안산의 관객에게도 소개하고자 한다.

원작 : 존 스타인벡 | 연출·각색 : 오세혁 | 조연출 : 김향희
 작곡 : 박기태 | 무대 : 오태훈 | 조명 : 이현승 | 기획 : 기획사 아,예
 출연 : 이승기, 최현미, 윤정욱, 이종길, 김승준, 송영미, 류성국, 이빛나, 안진혁, 김기일, 이봉하, 장은주



시놉시스

미국 대공황시기, 오랜 가뭄과 대자본의 진출로 오 클라호마 농장을 잃은 조드 일가는 더 나은 삶을 꿈 꾸며 서부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로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 그들이 탄 트럭의 잦은 고장 등에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은 마침내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그리며 온 이 도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착취와 탐욕, 저임금, 기아, 그리고 죽음이다. 가뭄으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기계가 사람의 일손을 대신하기 시작하며 설 자리를 잃는 농민들, 그리고 마침내 도시로 내몰리는 사람들. 자신들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가족들은 온갖 부조리를 목격하고 경험한다. 하지만 그 부조리함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가족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자신들을 이

용하고, 착취하는 대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갈취를 견디던 무수한 날, 가족들은 마침내 점차 폭 늘려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다.

극단 걸판

2005년 3월 창단하여 안산에 자리 잡은 젊은 창작 집단으로 놀이패 걸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다수의 장편 마당극을 만들었고, 새로운 형식의 재기발랄한 중 단편극을 통해 전국 각지를 누비며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의 주요작품으로는 Boat People(2013), 질풍노도의 역사(2013), 그와 그녀의 옷장(2014), 크리스마스에 삼십만 원을 만날 확률(2014), 한 번만 좀 때려볼 수 있다면(2014), 늙은 소년들의 왕국(2014) 등이 있다.

아버지의 방

극단 예지촌+소금창고+소풍이 연합해 만든 연극 '아버지의 방'은 가족, 인류 그 소중하지만 잊고 지내고 또는 무심한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억겁의 세월 속에서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1970~80년대의 팝과 대중가요를 중심 배경음악으로 삼아 친숙함과 편안함 속에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작 : 성정선 | 연출 : 염상태 | 기획 : 최병국
 출연 : 염상태, 성정선, 김민혜, 이성주, 강연규, 최병국, 차미경, 조미선, 윤미라, 정수용

시놉시스

되는데로 인생을 살아온 두석, 간암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33년 만에 딸 효진을 찾는다. 처음 격하게 반응하던 효진은 양아버지 병수의 회유로 두석의 방에서 두 달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색했던 둘 사이가 차츰 회복되어 가던 즈음 효진은 두석의 환갑잔치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그 자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배사 부부와 옆집청년, 심리치료상담사, 반찬도우미 아줌마가 초대되어 온다. 이에 그동안 사무칠 만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오던 두석은 생의 마지막에 한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연출의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최소 공동체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존속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곡 '아버지의 방'을 처음 대했을 때 가졌던 불쾌감은 지금도 사실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연출 입장에서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성스러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부정할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의 방', 단순히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다 간 한 아버지의 방이 아닌 그 어머니가 살았고, 비록 잘못된 단추로 엮인 부너지간이지만 그 딸의 삶의 한편이 이어져가는 방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담고 싶었다. 또 이를 통해 가족이라는 그 존귀함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빌어본다.

극단 예지촌+소금창고+소풍

이번 공모 지원을 위해 3개 극단이 모여 한 팀을 이루었다. 끊임없는 무대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져온 이들 단일팀의 완성도 높은 작품이 기대된다. 최근의 주요작품으로는 퓨전심청전(2013), 단원김홍도(2013), 행복입양리포트(짱이와 길동무들/2014), 대부의 꿈(갈라극/2014), 샘골학교 가는 길(2014), rainy day(2014) 등이 있다.



우리 하영이

‘극단 이유’가 선보이는 작품 ‘우리 하영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족의 모습과 또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아픔과 시련을, 청소년기의 하영이라는 주인공의 내적 외적 갈등을 통해 시대적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상처 입은 하영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품어내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을 통한 회복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제작 : 김종숙 ▶연출·작 : 정창주 ▶조명 : 서대홍 ▶음향 : 서동규 ▶무대 : 허필주
▶출연 : 김정민, 허수경, 강사랑, 정아름, 전진구, 김수연, 허진영, 안솔희, 이윤아, 류인선



시놉시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주인공 하영이 네 식구가 만들어 가는 평범한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가족의 생일이면 서로를 위해 이벤트도 마다않는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그러나 어느 날 이 가정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다. 바로 주인공 하영이 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그 사실은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었고, 하영이는 양지를 떠나 음지에서 방황하게 된다. 가출한 하영이를 찾아 헤매는 나머지 가족들. 하영이가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언니 하량은 용기를 내 그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그만 몸싸움 중에 큰 상해를 입게 된다. 언니를 상처 입혔

다는 죄책감에 더욱 큰 절망으로 떨어진 하영이. 과연 하영이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기획의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세상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다. 또 그것은 비단 어른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사랑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의 사랑의 부재. 그 사랑의 부재는 아이들을 자꾸만 음지로 몰아간다. 회복이 필요하다. 아동 심리학에서도 어린 시절 체감되는 사랑은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담은 이 연극을 준비했다.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소망을 담아 기획되었다.

극단 이유

극단 이유의 최근 작품으로는 해프기 70분전(2013), Rainy day(2014), 유관순(2014),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 인형극 ‘권리를 지켜줘’(201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2014), 자살자(2014) 등이 있다.

누가 살던 방

‘극단 오아시스’만의 색깔 가득한 ‘누가 살던 방’은 방이라는 소재를 하나의 유기적 관계가 연결된 기억의 창고로 간주함과 동시에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편들이 마주하면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제작 : 정도영 외 극단 오아시스 스텝 6명
▶출연 : 김승욱, 김경아, 이수진, 최길용, 박길주, 김윤희, 이시후, 이동희, 임동빈, 정도영, 황수경

시놉시스

연극 <누가 살던 방>은 도시 변두리 반지하방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삶의 매순간 울고 웃는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세입자가 오지 않는 방을 도우미는 열심히 청소하고, 중개인은 부지런히 방을 보여준다. 그리고 녹록지 않은 각각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에서 잠시 머물다 떠난다. 삶의 고단한 짐을 내려놓던 그 곳, 가족의 사랑이 있던 그 곳, 영혼의 안식처인 그 방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따뜻한 위로를 준다.

극단 오아시스

극단 오아시스의 최근 작품으로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2013), 이럴수가 있나요(2013),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2013), 산부인과(2013), 아름다운 사인(2014), 도덕적 도둑(2014), 일등급 인간(2014) 등이 있다.



유혹 - 하고픈 이야기2

이 작품은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고,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중년의 여성들로 구성된 '극단 유혹'과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극단 걸판'은 꿈, 가족, 사랑, 친구라는 주제로 추억의 노래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억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부모세대가 살아온 시대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작·기획 : 윤미라 **연출** : 최현미 **각색** : 오세혁 **음악** : 강연규 **영상** : 한지은 **조명** : 이성국
출연 : 강순자, 이하민, 백공주, 조미선, 임동윤, 김봉기, 박순향, 강연규, 한지은, 윤미라



시놉시스

'유혹-하고픈 이야기2'는 '유혹-하고픈 이야기'의 후속 작품으로 '극단 유혹' 단원들의 실제 자전적 이야기를 꿈, 가족, 사랑, 친구라는 주제로 꺼내고 다듬어 추억의 노래에 담아 무대에 펼친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매의 사연,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겪었던 젊은 시절의 힘들었던 기억,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와 운명적인 사건으로 다시 만나 화해의 눈물을 흘린 사연, 현실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했으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랑 이야기 등 네 개의 사연으로 함께 웃고, 울고, 나눌 수 있는 마당극 형식의 옴니버스 연극이다.

극단 유혹

최근에 주요작품으로는 유혹 두 번째 창작극(청이 날다/2013), 수원 특수교육 교사 연수 초청공연(청이 날다/2013), 연말 재능기부 공연(청이 날다/2013), 유혹 세 번째 창작극(유혹-하고픈 이야기/2014), 성포중 진로탐색 교육공연(바리데기 이야기/2014), 안산문인회와 진도문인회 교류전 시낭송의 밤 초청공연(청이날다-인당수/2014) 등이 있다. 

CULTURE TREND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38 **테마가 있는 미술**
에드가 드가

44 **테마가 있는 공연**
무대와 스크린

48 **테마가 있는 음악**
오페라와 영화

54 **칼럼**
파괴적 행동장애/반항성장애의 이해와 집단음악심리치료의
역동활용방법

술 한 잔에 삶을 담다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



①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2년, 코틀드 미술관 소장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자주 연관되어 묘사된다. 고전 미술 속에서 술의 모습은 주신 바쿠스와 함께 등장하거나, 연회 장면을 그린 종교화나 장르화에서 자주 그려졌다. 대부분 이런 종류의 그림에서는 술이 인간을 유쾌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근대사회가 성립되고 노동 계층이 등장하면서 술은 도시민의 고독과 소외를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술은 카페나 카바레와 같은 유흥의 장소에서 주로 그려졌지만 더 이상 유쾌함을 주는 묘약은 아니었다.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 드가가 그린 <압생트>(그림 3)를 보면, 피곤한 표정의 한 여인이 작은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마주하고 앉아있다. 홀로 술잔을 바라보는 여인은 파리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고독하고 소외된 익명의 여인이다. 여인이 마시는 술은 당시 파리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압생트라는 이름의 술이다. 일명 '고흐의 술'로 알려져 있으며, 피카소나 모파상 같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었다. 여인은 무슨 이유로 홀로 술잔을 들었을까. 19세기 파리로 돌아가 이 같은 장면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자.

Edgar Degas (19 July 1834 - 27 September 1917)

카페의 도시, 파리

19세기 파리의 골목에는 카페, 카바레, 트리포(도박장), 타피 프랑(뒷골목 술집) 등으로 불리는 술집들이 넘쳐났다. 대도시의 삶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유흥과 오락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17세기 처음 유럽으로 유입된 검은 음료, 즉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마련된 장소였던 카페가 19세기에는 각종 음료를 취급하는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하루를 시작하며 카페의 카운터 앞에 서서 커피를 즐긴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일을 끝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다시 카페를 찾아 술잔을 기울였다. 휴일에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달려갔으며, 기념일에는 어김없이 카페에 모여 자축했다. 어떤 이에게 카페는 낭만의 장소였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장소였다. 그래서 고흐는 별이 가득한 한 밤의 카페가 선사하는 낭만을 그렸으며, 마네는

고독한 표정의 카페 여종업원의 모습을 통해 카페를 찾는 이들의 외로움을 표현했다.(그림 7, 1) 카페는 예술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고, 시인과 소설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사회를 비평하고 싶은 지식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한 테이블로 모여들었으며,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조성했다. 게르부아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인상주의 미술이 시작되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파리의 카페는 대부분 대리석 테이블과 거울,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좁은 규모의 카페도 벽 한가득 거울을 설치해 공간이 넓고 시원해 보이도록 실내를 장식했다. 드가의 작품도 여인과 파이프를 문 남자의 등 뒤로 거울에 반사된 카페의 풍경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술, 압생트

카페에서 사람들은 술을 즐겼다. 드가의 작품 속 여인도 은은한 초록색 액체가 담긴 유리잔을 마주하고 있다. 고흐가 중독될 만큼 사랑했다는 술, 압생트이다. 맑은 초록색이 아닌 희뿌연 색을 띠는 이유는 술의 도수가 워낙 높은 탓에 각설탕을 녹여 마시기 때문이다. 숟가락 위에 각설탕을 올리고 그 위로 차가운 물을 천천히 따르면 설탕이 술에 녹아 들면서 우윳빛으로 변한다.

압생트가 처음 제조된 곳은 스위스로 1750년대에 등장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술의 주된 원료 중 하나가 향썩인데, 이것이 환각작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압생트의 환각성분이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진 모양이다. 빅터 올리바가 그린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그림 5)에는 초록색 몸의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압생트를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모파상과 보들레르, 랭보가 그들의 작품에서 압생트를 언급했으며, 마네와 고흐, 로트렉, 피카소 역시 압생트를 자주 그렸다. 이 술을 즐기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었으며, 저렴한 가격 탓에 계층 고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었다. 마네의 그림에서는 초라한 차림의 남성이 어두운 파리 뒷골목에서 압생트를 마시고, 로트렉의 그림에서는 피곤한 표정의 여인이 압생트에 취해 있다.(그림 2, 4) 압생트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도수는 지나친 음주를 불러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음주가 증가하면서 카페는 점차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고흐는 <밤의 카페>(그림 6)를 그리며 카페를 “사람들이 파멸해가는 곳, 미쳐가는 곳, 범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묘사했다. 압생트를 너무 많이 마시면 무정련의 착란을 겪으며 환청과 착시

에 시달린다는 설도 있었다. 흑자는 만년의 고흐가 시달린 정신착란의 원인을 압생트에서 찾기도 했다. 압생트의 중독성과 환각작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풍문들은 결국 이 술을 20세기 초반 판매 금지에 이르게 했다.

그들이 술잔을 드는 이유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자명했다. 술이 노동의 피로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19세기 파리의 노동자들은 주급의 반을 술값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드가의 그림에는 이와 같은 도시민의 일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를 도시의 관찰자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분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대도시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익명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여인의 차림으로 볼 때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다. 그녀가 당시 여성들에게 허용된 범위의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해 본다면, 가정부이거나 매춘부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한 공장에서 일거리를 얻은 노동자인지도 모른다. 옆에 앉은 남성은 또 누구인가. 파이프를 물고 있는 모양새로 보아 이 카페를 즐겨 찾는 시인이거나 소설가는 아닐까. 어떠한 시선과 대화도 주고받지 않는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도시의 카페에서 이와 같은 우연한 합석은 흔한 일이라는 듯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그림 속 여인은 매춘부도 공장노동자도 아닌 드가의 많은 그림에서 모델이 되었던 엘렌 앙드레이다. 파이프를 문 남성은 드가의 친구이자



② 에두아르 마네,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 1859년, 클립토테크 미술관 소장



③ 에드가 드가, 압생트, 1876년, 오르세 미술관 소장
④ 툴즈 로트렉, 압생트와 수잔 발라동, 1887년, 로트렉 미술관 소장





5



6

5 빅터 올리바,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1901년

6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1888년, 예일대학교 미술관 소장

7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테라스, 1888년, 그릴러 윌러 미술관 소장



7

관화가인 마르셀렌 데부탱이다. 배경이 된 카페는 파리 보헤미안들의 인기 모임장소였던 누벨 아테네를 재현한 것이다. 실제 이 장면은 카페가 아닌 드가의 작업실에서 그려졌으며, 드가는 모델들에게 압생트 중독자처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드가는 왜 이러한 장면을 일부러 연출까지 해가며 그리려고 했을까. 그는 피곤에 지친 파리의 소시민들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달래는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이다. 대도시의 이면에 담긴 평범한 이들의 고독과 우울을 술잔을 응시하는 앙드레의 시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의 외형은 화려하게 커져가지만 그 안에는 소외된 이들의 어두운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고자 한 것이다.

드가의 그림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다루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미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다. 직장 생활을 소재로 한 만큼 드라마에는 회식 장면을 포함한 술자리가 자주 등장했다. 어느 회인가는 술에 잔뜩 취한 주인공이 시청자들을 향해 "니들이 술 맛을 알아?"라며 직설을 던져 화제가 되었다. 직장인의 애환이 녹아든 한 문장에 우스우면서도 씩씩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드가의 압생트 잔에는 드라마 속 인물들과 같은 평범한 이들의 고단한 일상이 녹아있다. 오래 전 그려진 이 그림에서 소박한 술 한 잔에 위로를 얻는 우리들의 삶이 엿보인다.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무대와 스크린 ②

영화 <홍등>과 발레 <홍등>



© Lim-AMC

비극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99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 <홍등>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절제된 미학 속에 장이모우 특유의 색채감과 비판적 역사 의식을 담아낸 이 작품은 가부장적인 봉건제도 아래서 일어나는 한 집안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비극성을 전면에서 내세우기보다는 절제된 화면 속에 숨겨놓고서 몇 개의 상징을 통해 살짝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주된 상징은 영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홍등의 불빛과 발마사지 소리다. 이 집안의 모든 질서는 홍등으로 결정된다. 홍등은 주인이 잠자리에 든다는 신호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선망을 느끼게 하는 권력 유지 도구로서 기능한다. 전날 밤 홍등 불빛 아래서 남편을 모신 사람이 식사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가신들의 충성과 서비스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마디로 홍등의 점등(點燈)과 멸등(滅燈), 봉등(奉燈)은 곧 해당 여성의 성적·정치적 위치를 상징하며, 이러한 기호체계 속에서 개인의 인간적인 삶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한편 발마사지는 홍등을 밝힌 여인에게만 제공되는 이 집안의 특별 서비스다. 처음 발마사지를 받을 때 낮설어하면서도 점차 그 묘한 쾌감에 젖어드는 주인공 송련(공리)의 표정은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여인의 씩씩한 여운을 남긴다. 밤이면 밤마다 남의 후원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발마사지 소리는 간택 받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을 방망이처럼 두들기며 질투와 절망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주문이 된다.

절제된 화면 속에 드러나는 은밀한 시선

영화는 대학을 반 년 정도 다니다 부잣집에 첩으로 팔려온 넷째 부인 송련의 정신적 몰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이른바 ‘배운’ 여성으로 시집을 때 가마를 타지 않고 자기 발로 찾아올 만큼 독립심 있고 또 자존심도 강한 여성이지만 딱 막힌 봉건사회의 틀 속에서 결국 무력하게 무너진다. 가수 출신인 셋째 부인이 그녀에게 말하듯, “배운 여자나 천한 출신이나 결국 이 집안에서는 똑같은 운명”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주인공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홍등 DVD 출처 : Orion Classics / 포스터 출처 : daum 영화

VS



© Lim-AMC

불합리하게 여겼던 집안의 풍속과 사람들의 태도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주인공은 스스로 그 질서 안에 자신을 안착시키고, 발 마사지와 하인들의 떠받침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든다. 심지어는 거짓 임신까지 서슴지 않다가 이를 들리게 되자 그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결국 하녀를 죽게 만들고, 술김에 셋째 부인의 밀애를 떠벌려 그녀마저 죽음으로 몰아간다. 두 여인을 죽게 만든 데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송련은 결국 미친다. 그리고 영화는 다음해 여름, 다섯 번째 부인의 결혼식을 보여주며 끝을 맺는다. 소리 없이 사라진 여인들의 비극을 숨긴 채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은 작품의 비극성을 조용히, 하지만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홍등>의 표면적 비극은 꼭 막힌 공간 속에 벌어지는 여성들의 시기와 압투, 그리고 이로 인한 죽음이지만, 사실 진정한 비극은 그 배후인 남편, 그리고 가부장적 봉건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단순히 한 여인과 집안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시대성을 띤 상징적인 비극으로 드러내고자 장이모우는 밀회나 죽음, 살인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은 화면 너머에서 일어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모든 비극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남편 역시 상징적인 존재로 그렸다. 영화 <홍등>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무대로 옮겨 불을 밝힌 '홍등'

1990년대 후반부터 장이모우의 활약은 영화를 넘어서 전방위 문화로 확장된다. 활동 영역의 확장과 함께 연출 스타일 또한 변화했는데, 2000년대 작품인 <영웅>, <연인>, <황후화> 등에서는 장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출연진, 그리고 장면 장면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미장센과 선명한 색채감이 부담스

러울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덕분에 근래의 영화들이 너무 스펙터클과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스크린이 아닌 무대 작업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색채와 이미지의 향연이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미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대규모 무대 연출력을 선보인 바 있는 장이모우는 2001년, 중국 국립발레단의 의뢰로 자신의 영화 <홍등>을 무대화 하는데 성공한다. 사실 <홍등>은 영화 자체로도 시간과 공간이 압축적인데다 극중 '홍등'의 선명한 이미지 때문에 무대화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장이모우는 이를 그대로 무대에 옮기는데 만족하지 않고, 무대예술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와 표현양식을 고민함으로써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냈다.

일단 대사가 없는 발레의 특성을 고려해 서사성보다는 움직임에 극의 중심을 실었다. 드라마는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복잡한 인물 관계도 간략하게 줄



© Lim-AMC

였다. 원작에서 각기 다른 아픔과 욕망을 품고 등장했던 세 부인과 주인공, 그리고 그녀의 복잡한 관계는 두 젊은 부인으로 간소화했고 대신 남자 인물들의 비중을 키웠다. 영화에서 뒷모습과 목소리로만 등장하며 상징적으로 처리되었던 남편이 무대 전면에서 서고, 원작에는 없던 경극 배우가 주인공의 옛 연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관계의 변화는 단순해진 서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2인무·3인무·군무 등의 춤 형식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서사'가 아니라 '춤'으로 이 작품을 풀어나가겠다는 연출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덕분에 주인공이 남편 혹은 경극 배우와 추는 2인무가 극을 이끌어 가고, 두 부인과 남편의 욕망과 질투가 뒤섞인 3인무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화해와 용서의 3인무 등이 도드라진다. 또한 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가신과 시녀들, 그리고 경극 배우들은 무대를 압도하는 대규모의 군무를 통해 대극장 무대를 효과적으로 채워간다. 인물군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시선 역시 달라졌다. 영화가 여주인공 송련을 통해 지식인 여성이 봉건사회의 벽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길들여지고 망가지는지 그 붕괴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발레는 여주인공이 처한 상황적·감정적인 비극을 절절하게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

화려한 색채로 부각되는 비극성

인물의 심리 대신 인상적인 장면과 이미지로 극을 이어가기 위해 장이모우는 무엇보다 무대의 미장센에 심혈을 기울였다. 발레 <홍등>에서는 홍등의 점등, 멸등에 따른 인물의 미묘한 심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무대 전면을 가득 채운 홍등은 무대 전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며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대에 압도적인 색채감을 부여한다.

한편 영화에서 주역을 맡았던 궁리가 무심하면서도 섬세한 표정으로 인물의 내면을 그려냈다면, 발레 <홍등>의 무용수들은 절망과 사랑, 애뜻함 등의 감정을 온몸으로 풍부하게 표현한다. 절제의 미가 돋보였던 영화에 비해 발레 <홍등>은 무용수들의 크고 강렬한 동작을 통해 격정적인 감정을 무대 가득 흘러넘치게 만드는데, 이는 무용수들의 춤만이 아니라 장면 연출에서도 도드라진다.

특히 영화에서는 암시만 남겼던 주인공의 첫날밤, 그리고 살인과 같은 자극적인 장면을 발레에서는 전면에서 내세움으로써 정서적인 충격과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첫날밤을 그림 자극을 통해 보여준 것이나 마지막 처형 장면을 흰 스크린과 핏자국으로 형상화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묵직한 몽둥이 소리와 선연한 핏자국, 그 앞에서 쓰러지는 세 연인과 흘날리는 눈발은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감각적으로 극대화시킨다. 가장 직접적인 무대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무용예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한 연출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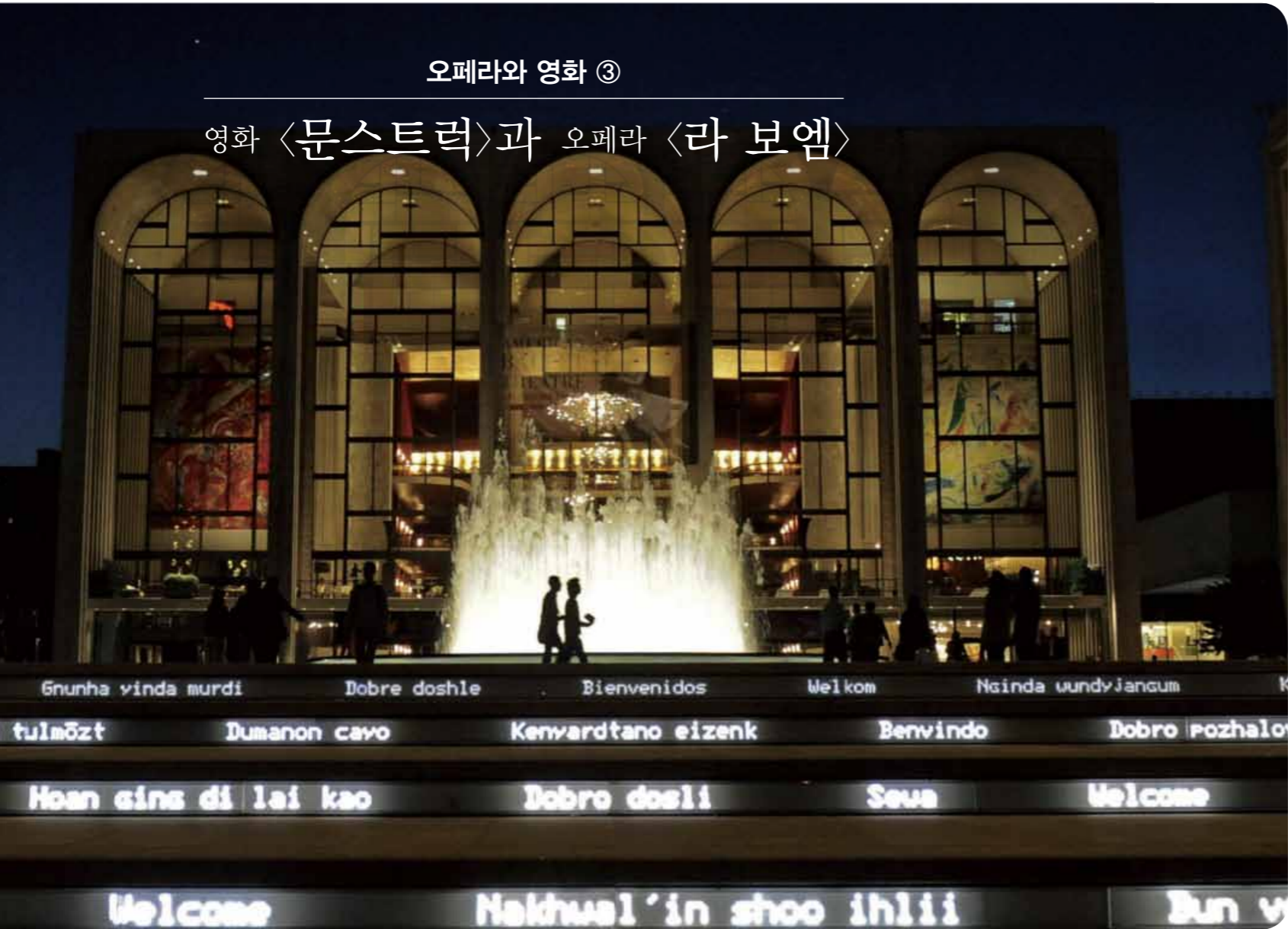
이렇듯 영화 <홍등>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진 비극을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발레 <홍등>은 이를 무대 전면으로 끄집어내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연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든, 목격자로서 미쳐가든 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화 <홍등>과 발레 <홍등>의 비극성은 결국 다르지 않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와 영화 ③

영화 <문스트럭>과 오페라 <라 보엠>



❶ 영화에서 라보엠이 공연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커다란 피자 파이 같은 달빛이 그대의 이마를 때릴 때, 그것은 황홀한 사랑의 징조라네!” 뉴욕 맨해튼 상공에 보기 드물게 커다란 보름달이 뜬다. 달빛이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다 준다는 속설처럼 은은한 달빛 아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맺어지게 된다. 노먼 주이슨의 <문스트럭>(1987)은 이걸 그린 영화다. 영어단어 문스트럭(moonstruck)은 ‘환한 달빛에 머리가 돌아버린’이란 뜻인데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사랑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달은 당연히 낮게 떠서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이어야 한다.

M O O N S T R U C K
and
L A B O H E M E

<문스트럭>의 대강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인 로레타는 37살의 과부다.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버스에 치여 죽었는데, 로레타는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한 바람에 액운이 낀 탓이라고 생각한다.

로레타는 남편의 친구였고 역시 이탈리아계인 자니의 구혼을 받아들인다. 자니는 위독한 모친의 마지막을 지키러 시칠리아로 떠나면서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 로니를 결혼식에 초청해주길 로레타에게 부탁한다. 로레타는 제과점을 하는 로니를 만났다가 형에게 갖고 있는 억울한 감정을 듣는다. 형 때문에 한쪽 손을 잃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로니의 야성적 열정에 끌려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만다.

한편 로레타의 아버지 코스모는 오랜 결혼생활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정부를 만나고 이를 눈치 챈 어머니 로즈는 혼자 힘들어한다. 로니는 로레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로레타는 하룻밤의 실수를 자책한다.

이탈리아 혈통답게 오페라 광인 로니는 자기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한번만 함께 가주면 영원히 떠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보려는 오페라가 푸치니의 <라 보엠>이며, 로레타 역시 처음 본 오페라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

오페라 <라 보엠>

1896년 2월 토리노 왕립 가극장에서 초연된 <라 보엠>은 당시 38세였던 자코모 푸치니의 네 번째 오페라로 파리 뒷골목 예술가들의 가난한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보엠’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헤미안처럼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예술가들’이란 뜻이다. 시인 로돌포는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와 형편없는 옥탑방에서 집세도 밀린 채 지내는데, 추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래층에 사는 미미와 처음 만나게 된다.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두 사람은 뒷골목 삶답게 곧바로 살림을 차려버리고 친구들은 옥탑방을 비워준다. 문제는 미미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중이고 로돌

포는 그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엔 너무 가난하다는 점이다.

오페라의 원작은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의 <보헤미안의 삶의 정경>이다. 23편의 짧은 이야기가 묶인 소설로써 주인공은 로돌포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보헤미안, 즉 파리 뒷골목의 예술가 친구들이다. 가난한 예술가 청년들이 겪는 고단하지만 생기 넘치는 삶, 이들이 겪는 다양한 연애담, 그리고 결국은 모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다는 후일담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푸치니의 오페라는 원작과 다른 점이 많다. 친구들 중 로돌포가 단연 중요하게 다루어진 점도 그렇고 소설 속의 로돌포는 미미뿐 아니라 루이즈, 로르, 앙젤, 줄리엣이란 여러 아가씨와 차례로 사귀는 여성편력을 보인다. 물론 미미가

가장 중요하지만 오페라에서처럼 한사람을 위한 순애보는 아닌 것이다. 소설과 오페라의 순서도 다르고, 더욱이 미미와 로돌포가 하숙집 옥탑방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프랑신과 자크’라는 다른 커플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다. 계절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봄이다.

<라 보엠>의 주인공은 로돌포와 미미 커플이지만 마르첼로와 무제타가 또 다른 커플을 구성한다. 특히 둘 다 소프라노인 미미와 무제타의 캐릭터가 대조적이다. 우선 무제타는 돈 많은 남자에게 붙어서 호사스런 삶을 기대하는 유사(類似) 코르티잔인데, 코르티잔이란 생활비를 대주는 후원자의 애인 역할을 하는 19세기 프랑스 특유의 계층이다. 마르첼로에게 돈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말다툼을 벌이게 되기에 다른 남자 곁을 떠도는 것이다. 반면 미미는 폐병으로 건강을 크게 해쳐 자취방에서 뜨개질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순수한 처녀일까? 1막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원래 이름은 루치아인데 사람들이 미미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미미는 보통의 여자 이름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대개 귀여운 여인에 대한 애칭이다. 다시 말해 미미도 어떤 형태로든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오페라가 실감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막에서 미미는 로돌포가 시인이라고 밝히는 ‘그대의 찬 손’을 들으며 가난하지만 폼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빠져든다. 로돌포는 미미에게 사랑을 느끼는 순간 당장 칩대로 끌어 들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그녀가 친구들에게 인사시켜달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함께 나가는 장면에서 그 유명한 이중창



② 라보엠 1막의 다락방 무대

③ 라보엠 초연포스터

‘사랑스런 아가씨여’를 부른다. 물론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동거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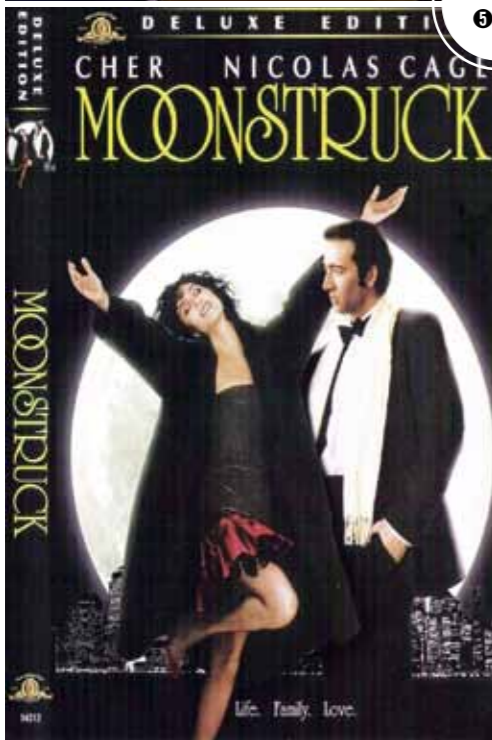
2막에서 무제타의 왈츠 ‘내가 거리를 걸으면’은 그녀가 모르는 척 하는 마르첼로의 관심을 끌고자 부르는 노래다. 간신히 외면하는 마르첼로를 향한 결정타로서 무제타는 민망하게 치마를 들어 올리며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아프다고 요란을 떨며 코르티잔의 면모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낸다.

3막. 말다툼 끝에 로돌포가 집을 나가자 마르첼로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미미. 로돌포의 진심을 알고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중창은 너무나 슬프다. 그래도 겨울은 너무 춥고 쓸쓸하니 어떻게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후속장면은 더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또 다시 헤어지는 마르첼로와 무제타를 삽입한 푸치니의 솜씨는 실로 절묘하다.



②

MOVIE 'MOONSTRUCK'



④ 영화의 마지막 장면-가족을 위하여!
⑤ 영화 문스트럭 포스터

⑥ 영화속 리틀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인 레스토랑
⑦ 문스트럭의 등장인물들

4막. 옥탑방을 떠났던 미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제타 덕분에 정든 방에 돌아온다. 오페라의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순간이며, 힘없이 첫 만남을 회상하는 미미와 로돌포의 대화에서 가슴 찡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로돌포의 친구들과 무제타가 드러내는 진한 우정도 가슴 뭉클하다.

〈라 보엠〉은 동시대에 유행한 사실주의(베리즈모) 오페라와 닮은 점도, 다른 점도 많다. 땀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가난한 예술가, 동거부터 하는 사회상, 실재하는 식당인 카페 모뮌스 부근의 생생한 묘사는 사실주의와 일맥상통하지만 치정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점,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을 끝내 아름답게 포장한 점은 아무리 처연해도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외치고 싶은 우리들 모두의 아름다웠던 과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영화는 〈라 보엠〉보다 뉴욕의 이탈리아에 대한 묘사 개리 마샬의 영화 〈귀여운 여인〉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공연장면은 물론 그 캐릭터 구도까지 따온 것과 달리 〈문스트럭〉은 〈라 보엠〉을 뉴욕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이용한다. 즉 미국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지만 자신들의 종족문화를 유지하는 이탈리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과 생활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다. 특히 그 가족주의에 대한 묘사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려져 있다.

오페라하우스에서 나오는 길에 로레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언쟁을 벌인다.

그렇게 흐트러진 기분 탓에 하룻밤을 더 함께 보내자는 로니의 애원에 넘어가고 만다. 한편 자니는 시칠리아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다. 다음날 아침, 로레타의 집에 모든 등장인물이 차례로 모여든다. 먼저 온 로니는 이윽고 도착한 형 자니와 5년 만에 조우한다. 자니가 일찍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가 회복하셨다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어머니는 맏아들이 다른 여자가 지어주는 밥을 먹게 되었다는 말에 질투가 나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건 한국 엄마 빼고는 이탈리아 엄마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물론 로니는 그 자리에서 형 대신 로레타에게 청혼하고 즉석 파티가 벌어진다. 자니는 풀이 죽지만 “알라 파밀리아!” 즉 “가족을 위하여”라는 할아버지의 건배사에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동생 커플을 축하한다. 가족우선주의, 이것 또한 이탈리아적인 특징이자 우리 민족과 닮은 점이다.

이 영화는 사실 제3자에 의한 관찰기에 가깝다. 대본작가와 감독 모두 비 이탈리아계이며 출연진 중에도 이탈리아와 무관한 배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로니 역의 니콜라스 케이지는 부친이 이탈리아계이고 자니 역의 대니 아이엘로도 이탈리아계다.



글 유형 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파괴적 행동장애와 (품행장애(CD:Conduct Disorder))

반항성장애의 (ODD: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이해와 집단음악심리치료의 역동활용방법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 Helen Keller

주파괴적 행동장애(품행장애(CD:Conduct Disorder), 반항성장애(ODD: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아동 청소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병원 및 정신건강센터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행동문제 중 하나로 파괴적 행동장애가 있다. 파괴적 행동장애는 크게 품행장애(CD)와 반항성장애(ODD)로 구분되며, 이 증상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행동통제가 원만히 되지 않으며, 공격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품행문제와 비행등의 사회적 탈선 행동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는다. DSM-IV-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 의하면 품행문제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까지 어기는 범법행위(싸움, 도둑질, 기물 파괴, 학교 지도문제, 성행동 및 신체적 가해 행동)등을 보이는 문제로 18세 이후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10세 이전 아동기에 발병하는 조기 발병형도 있다. Lahey(1998)에 의하면 조기발병형이 청소년기 발병형보다 공격적인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항문제는 나이에 부적절하게 고집이 세고, 적대적이며 시비조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취학 전이나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꽤 이른 시기에 이러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Mash & Wolfe, 2002). 또한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며, 반대를 일삼는 것으로 대개 가족, 특히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품행장애(CD) 아동 및 청소년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과 반항성장애(ODD)의 진단기준과 기준빈도는 다음과 같다.

◆ 품행장애(CD) 아동 및 청소년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

1. 주의력 결핍과 낮은 좌절 내성
2. 충동성과 무모함
3. 학습장애(특히 읽기)
4. 부정적 정서 : 시무룩함, 화를 잘 냄, 변덕스러운 분노
5. 낮은 자아존중감
6. 손상된 인지 : 크기 및 시간 인식의 왜곡, 이전 사건과 결과의 연관성 부족 또는 왜곡된 연결, 대안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찾고, 평가하고, 시행하는 능력의 제한
7. 정서적 결함 : 최소한도의 두려움과 슬픔, 과장된 분노, 공감의 부족, 죄책감의 부족
8. 손상된 대인관계 : 의심이 많음, 인지적 왜곡 수반
9. 귀인편향 :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오인, 문제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 지향적, 공격적 해결 선호

◆ 반항성장애(ODD)의 진단기준과 기준빈도

1. 종종 버럭 화를 낸다(기준빈도 2회/주)
2. 종종 성인과 언쟁을 한다(2회/주)
3. 종종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성인의 요구나 규칙에 따르기를 거절한다(2회/주)
4. 종종 고의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4회/주)
5. 종종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한다(1회/3개월)
6. 종종 다른 사람에 의해 과민해지거나 쉽게 짜증을 낸다(2회/주)
7. 종종 화를 내며 억울해한다(4회/주)
8. 종종 악의적이거나 앙심을 품는다(1회/3개월)

특히 반항성장애(ODD)는 위의 행동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적어도 네 가지 이상으로 표출되어야 진단하게 된다.

반항성장애(ODD)의 주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부모의 결혼 생활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부모는 아동을 위한 충분한 공감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갖고 교류하지 못하는데에 그 문제가 있다.

집단음악치료 역동활용을 통한 중재방법

이런 문제적 증상을 갖는 아동 청소년들의 치료목표는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데 있다. 더불어 친구나 교우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정서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적 측면의 행동 조절과 타인에 대한 수용능력 향상을 필요로 한다.

지난 호에서 이미 음악의 치료적인 영향력과 다양한 기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음악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련의 반응들을 촉진시키고, 심신의 자발적인 구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음악적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체계적인 환경과의 접촉이 이루어져 문제적 행동의 균형적 변화와 심리적인 이완이 이루어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번 호에서는 파괴적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계적 결함을 위한 치료접근으로 축소된 사회로 일컫는 집단치료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의 관계 역동활용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단 음악치료의 특징은 집단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즉 집단 공동체의 정서적 공유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며, 나아가 타인

에 대한 배려와 감정이입 등의 사회생활기술 습득이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상호-교류적 생활화로 행동의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집단음악치료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언어적 표현의 미숙이나 행동으로만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들을 활동 후 피드백을 통해 언-행의 균형과 구조화로 회복시키게 된다.

집단 음악치료의 역동 형태의 방법들은 앞으로 소개 될 주제의 범주에 맞게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연주와 솔로(Solo)와 투티(Tutti)연주, 그리고 그물 식 연주형태를 소개한다.

1. 공동연주

공동 연주는 집단음악치료에서 자주 이용되는 연주 형태이다. 공동연주의 장점은 개인의 연주가 집단 안에 파묻혀 쉽게 돌출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개인 연주의 익명과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이유로 집단치료가 이루어지는 첫 만남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악기를 시험해보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개인적인 연주행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자유 공동연주의 형태로서 말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사는 주로 처음 경험하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을 유도하면서 내면의 불안한 감정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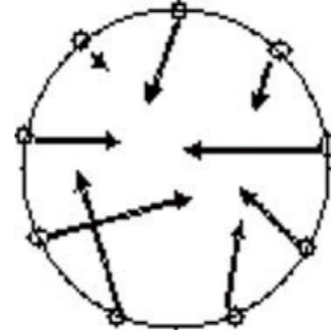


그림 1. 자유 공동 연주 형태

탐색하고 연주해 보세요.” 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유롭게 그 소리를 함께 공간을 돌아다녀보세요” 등으로 인도 할 수 있다.

연주가 시작되어 그 소리가 치료실 공간을 채우게 되면 집단성원들은 자신이 생산해 낸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짐으로 자신과 공간의 화합을 경험하게 되어 낯선 공간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 함께하는 연주로 집단 역동성에 힘입어 불안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사회적 환경에서 제약받고 규제 당했던 심리적인 압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체험하기도 한다. 또한 소리 공감이 현존하는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치료사는 “지금 현재 기분이 어때요?”로 인도하거나 “요즘 불만사항이 많죠?”등으로 자발적 연주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림 2]는 리듬이나, 음정 또는 멜로디 등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하여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일치하여 음악을 생산해내는 형태이다. 이런 역동 형태는 개인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 주는 역할을 제공하며, 하나의 공동체적 경험과 동질적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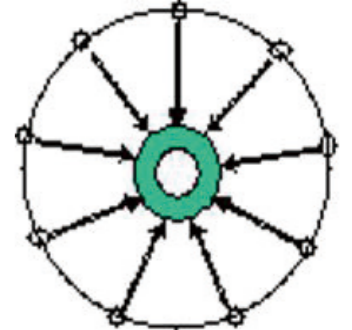


그림 2. 공동 생산 연주 형태

미 잘 알고 있는 노래를 같이 합창하거나 치료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동시에 공동으로 연주하는 형태가 여기에 속

한다. 예를 들어,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하도록 동일한 감정을 통합하고 극대화하여 해소를 돕거나, 반대로 “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보고 묘사해 보세요.”로 정적인 측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각력과 주의력 통합을 이룰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눈을 감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청각을 이용하는 것 등으로 이완을 도울 때 응용될 수도 있다. 물론 반드시 통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단에 따른 치료 목적에 따라 이질적인 측면으로 공동연주를 인도할 수 있다.

2. 솔로(Solo)와 투티(Tutti)연주

파괴적 행동을 갖는 아동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인정하는 독립적인 자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인간의 원만한 교류적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솔로와 투티의 연주형태가 보다 의미 있는 역동 체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이다. 솔로-공동연주, 또는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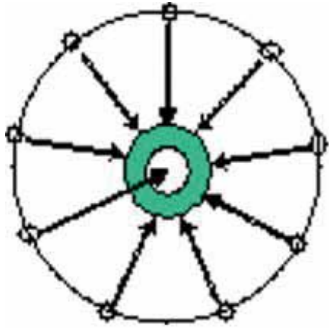


그림 3. 솔로와 투티연주 형태


연주-솔로-공동연주 식으로 공동연주 중간에 독주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리듬 패턴을 연주하면 제시된 리듬

을 집단이 받아 공동으로 연주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형태는 공동연주 중에 개인의 역량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전경으로 나서도록 인도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런 연주 형태는 공동연주가 배경이 되어 마치 독주자가 행가래를 타듯 연주 중에 긴장과 기쁨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역동적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다. [함께]란 제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집단이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연주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파괴적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다양한 감정들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역동 형태라 볼 수 있다.

3. 그물 식 연주

그물 식 연주는 구성원들 내면에 논쟁과 반영으로 정신에너지를 일으키게 된다. 그물 식 연주형태는 행위지령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주형태와 달리 행위의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는 상황에 발생되기 때문이다. 진행의 과정을 [그림 4]에서 보듯이 한 구성원이 연주를 시작하여 일정한 순서규칙 없이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연주 권

한을 넘긴다. 이 권한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임의의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계속적인 권한의 이동으로 진행된다. 그물 식 연주를 경험

한 후에 따르는 환류기법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그물 식으로 연결되어 일어난 사실적인 관계적 현상들은 쉽게 언어적 표현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은 축소된 사회적 현상을 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택 받을 때와 선택할 때에 따른 대상과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것은 집단에서 자신의 영역과 입지를 다지는 체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형태는 구성원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며, 선택의 자유와 규칙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약속과 규칙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빠른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 집단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진취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시간의 제한을 두어 조절하면서 집단의 역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인 제한은 구성원들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를 사료해야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공동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글 하 준 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 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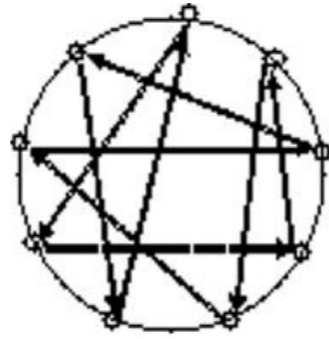


그림 4. 그물 식 연주 형태

특집

안산국제거리극축제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특집
60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의 거리는 온통 축제의 물결

국내외 61개팀 출연 /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대한민국 대표적 공연예술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이하 거리극)가 올해는 4월 30일 프리페스티벌_원곡동을 시작으로, 5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액션!(City in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이번 축제는 국내외 총 61여 개 작품과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들이 관객들과 함께한다.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특징

2015년도 거리극은 '프로그램별 명확한 특성 구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역에 대한 예술적 고찰 시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기존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르가 섞여 구성되었다면 올해는 프로그램별 성격과 장르가 보다 명확히 구분된다. 여기에 <공식참가작>과 <자유참가작> 프로그램의 예술성과 실험성의 부각을 위해 대중성 높은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광대의 도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둘째 축제는 2013년도부터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이라는 도시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예술적 탐구를 시도해 왔는데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리페스티벌_원곡동>은 축제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의 보다 다양한 특색을 축제에 담아낸다. 또한 <그랜드 콘티넨탈>, <메가폰 프로젝트>, <시민의 건축>, <편린 인 안산>과 같은 해외 대형 거리예술 작품에 안산의 예술적 소재들을 녹여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거리극은 축제 제작단계부터 많은 안산 시민들이 주축으로 참여한다. <그랜드 콘티넨탈>의 시민 댄서, <시민의 건축> 시민 건축가, <아트업> 시민 설치미술가, <올모스트, 단원> 시민 배우 등 다수의 작품에서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사전부터 축제를 준비 한다.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즐기기

공연 마니아라면?

당신이 만일 공연 마니아라면 높은 완성도와 차별성을 지닌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식참가작>에 주목하라.

먼저 몸짓 언어가 지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소개된다. 특히 프랑스 오스모시스 <철의 대성당>과 포르투갈 오 울티모 모멘토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신체언어의 극대화된 예술성을 나타낸다.

<철의 대성당>은 산업현장에서 오가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언어를 몸짓과 신체에 녹여 표현한 무용작품이다. 실제 공장 노동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출연하여 리얼리티가 극대화된 작품으로, 공업도시라는 안산의 특성과도 잘 어울린다. <남겨진 사람들>은 기억을 잃고 끝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갇혀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아크로바틱 공연이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중국식 장대를 무대삼아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선보인다.

또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가능한 시의성 짙은 소재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소개된다. 비주얼 씨어터 꽃의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는 (예)술과 세월에 휘청이는 취객과 대답 없는 담벼락 사이의 실랑이를 표현한 페인팅 퍼포먼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담벼락과 페인팅, 물 그리고 빛과 제3세계 악기소리들이 관객들을 원초적 내면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예술창작공장 콰안드의 <당나귀 그림자 재판>은 '당나귀 그림자'를 가지고 다투는 어리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음악극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소유권 다툼은 현대사회의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군중심리와 분노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조화로운 삶>은 라이브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과 무용수들의 개성 있는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 쉼과 조화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무용 작품이다.





자타공인 가족바보라면?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은 당신, <자유참가작>과 <광대의 도시>를 주목하라. 올해 축제에는 가면, 인형 등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들이 다수 소개된다. <우산이 필요해>, <황금영혼>, <빈대떡 신사>, <제랄다와 거인>, <쿠쿠리쿠>는 가면과 인형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이다. 소월길 위에 비닐하우스 <우산이 필요해>는 마음이 어우러진 가면극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뜨거운 외침을 그렸다. 친구네 옥상 <황금영혼>은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가면을 활용해 핵전쟁의 무서움을 표현했다. 인형극연구소 인스 <빈대떡 신사>는 배고픔이라는 원초

적 상황을 독특한 외관의 인형들과 익살스러운 분장을 한 배우들에 의해 풀어낸 작품으로 인형극과 마당극이 혼합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다. 극단 문(門)의 <제랄다와 거인>은 '토미 옹거러'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소주 컵에서부터 커다란 팝콘 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컵 인형이 등장한다. 닭과 마술사 모양의 펠트 인형을 활용해 코믹한 순간을 선사하는 올라마친의 <쿠쿠리쿠>까지 올해 거리극이 준비한 다양한 오브제극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다.

2015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정표

안산 사랑꾼을 꿈꾼다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안산. 안산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혹은 안산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고 싶다면? 현대의 안산 사랑꾼을 꿈꾸는 당신 <크리에이터>를 주목하라.

거리예술은 거리에서 공연되는 만큼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르이다. 모든 거리예술작품에 있어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가 지닌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그렇기에 안산이라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안산거리 예술크리에이터>는 필연적으로 지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대화를 담을 수밖에 없다.

윤한술 연출을 필두로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인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의 <안산 순례길>은 관객과 함께 도시의 특정 성지를 순례하는 형태의 이동형 공연이다.

성지는 안산의 도시성과 시민의 일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며 각각의 성지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설치, 체험 등이 진행된다. 성지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관객들은 기존에 스쳐 지나갈 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순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극단 문의 <올모스트, 단원>은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응시하는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2인극이다. 안산의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 시민배우로 참여해 사랑과 우정, 관심사 그리고 현재의 화두를 더하여 안산이라는 도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시의 트라우마를 안게 된 안산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은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예술이 갖는 치유와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공식참가작인 호주 메가폰 프로젝트의 <메가폰 프로젝트>와 호주 올 더 퀸즈 맨의 <편린인 안산>은 기존 대규모 거리예술작품에 안산 지역 특성을 반영, 재창작된 작품이다.

<편린인 안산>은 마라톤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된 대형 퍼포먼스로 관내 다양한 스포츠, 예술 커뮤니티들이 참여해 아티스트의 완주를 응원한다.

내가 바로 아티스트!

숨겨왔던 나~의 재능을 뽐내라! 예술적 영감으로 삶이 가득 찬 당신, <기획프로그램>을 주목하라.

우리의 소소한 예술적 '액션'이 모여 완성하는 도시의 활력! <위대한 도시>는 <그랜드 콘티넨탈>과 <시민의 건축>을 소개한다. 지난 10주간 시민 댄서 160여명이 땀 흘려 준비해온 <그랜드 콘티넨탈>의 위대한 전막이 축제 마지막 날 공개되며, <시민의 건축>은 시민 건축가들의 힘만으로 안산의 기념비적인 박스 건축물을 완성한다. 종이 박스의 위대한 변신을 만날 수 있는 <시민의 건축> 시민 건축가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건물의 공동창조를 통해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고 일상공간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 오!아시스>의 <아트업, 액션>은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설치미술작품을 제작한다. 관내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완성한 설치미술작품은 삭막한 도심 속 광장에 등장한 예술 오아시스로 축제 방문객의 예술적 갈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고단한 몸을 잠시 쉬어가는 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1(금 / Fri)

● 크리에이터 ● 공식참가작 ● 자유참가작 ● 광대의도시 ● 기획프로그램

	A	A Street	B	B Street	C	C Street	D	D Street	E	E Street	F	F Street	G	G Street	H	장소특정 공연		
02:00	아트업, 액션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시민의 건축								골목 드레싱					메가폰 프로젝트		
02:30														황금영혼				
03:00							퍼니키토 쇼	거리의 시인						제랄다와 거인				코미디 히어로 쇼
03:30	쿠쿠리쿠														킬링타임			메가폰 프로젝트
04:00																		당나귀 그림자 재판
04:30					바퀴 : 무지막지 서커스													메가폰 프로젝트
05:00	블랙 클라운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퍼포먼스					빈대떡 신사		자전거 식당								코미디 히어로 쇼	
05:30	쿠쿠리쿠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황금영혼	제랄다와 거인			메가폰 프로젝트	
06:00															킬링타임			
06:30					아타리쇼							집으로		투맨			그린 티	
07:00					퍼니키토 쇼			황금영혼										
07:30										스텝 바이 스텝								
08:00	도깨비 야시장				템페스트					북아현 코스모스						남겨진 사람들	안녕, 안녕.	
08:30									개막 프로그램 안녕, 안녕.									
09:00									개막 프로그램 비상									

2(토 / Sat)

● 크리에이터 ● 공식참가작 ● 자유참가작 ● 광대의도시 ● 기획프로그램

	A	A Street	B	B Street	C	C Street	D	D Street	E	E Street	F	F Street	G	G Street	H	장소특정 공연
12:30			시민의 건축													
01:00	아트업, 액션		울모스트, 단원 작은무대		코메디 서커스 쇼											메가폰 프로젝트
01:30							빈대떡 신사				자전거 식당					와리골 광대들
02:00	도쿄매드 클라우닝 쇼		시민의 건축		퍼니키토 쇼							예연장	킬링타임			메가폰 프로젝트
02:30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바퀴 : 무지막지 서커스								No답				
03:00	나홀로 서커스		울모스트, 단원			거리의 시인						예연장		당나귀 그림자 재판		안산순례길
03:30					코메디 서커스 쇼							자전거 식당	제랄다와 거인	메가폰 프로젝트		
04:00	쿠쿠리쿠	스트리트 픽스토그램 퍼포먼스										예연장	황금영혼	코미디 히어로쇼		
04:30			시민의 건축									No답		메가폰 프로젝트		
05:00	도쿄매드 클라우닝 쇼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예연장	킬링타임	아타리쇼		
05:30					템페스트							황금영혼		메가폰 프로젝트		
06:00	나홀로 서커스		시민의 건축 완공식		황금거지							쿠쿠리쿠				
06:30					퍼니키토 쇼							예연장	웰컴 (W.C)	코미디 히어로쇼		
07:00			울모스트, 단원		발랄살벌! 동당애 차력단								황금영혼			
07:30					템페스트											
08:00	도깨비 야시장														철의 대성당	신발(침묵의 리듬)
08:30					소나기		조화로운 삶								북아현 코스모스	
09:00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남겨진 사람들
09:30														뮤제 불랄		

3(일 / Sun)

● 크리에이터 ● 공식참가작 ● 자유참가작 ● 광대의도시 ● 기획프로그램

	A	A Street	B	B Street	C	C Street	D	D Street	E	E Street	F	F Street	G	G Street	H	장소특정 공연
12:00							아타리쇼									
12:30	아트업, 액션		시민의 건축				그린 티									
01:00			울모스트, 단원 작은무대						도쿄 클라우닝 쇼						자전거 식당	안산순례길
01:30									와리골 광대들			황금영혼				
02:00													No답	예연장	메가폰 프로젝트	
02:30	코메디 서커스 쇼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퍼니키토 쇼		코미디 히어로쇼							우산이 필요해		
03:00			울모스트, 단원 작은무대			거리의 시인			그랜드 콘텐탈				예연장		당나귀 그림자 재판	
03:30								투맨	황금영혼			봄을 노래하다				
04:00		스트리트 픽스토그램 퍼포먼스						대동		쿠쿠리쿠				웰컴 (W.C)	메가폰 프로젝트	
04:30									황금거지				No답	자전거 식당		
05:00		스트리트 픽스토 그램	울모스트, 단원						나홀로 서커스			봄을 노래하다	예연장	우산이 필요해	그린 티	
05:30									코메디 서커스쇼			황금영혼			메가폰 프로젝트	
06:00	쿠쿠리쿠					도쿄 클라우닝 쇼	퍼니키토 쇼								코미디 히어로 쇼	
06:30								대동		발랄살벌! 동당애 차력단						
07:00														웰컴 (W.C)	신발(침묵의 리듬)	
07:30			울모스트, 단원						조화로운 삶						철의 대성당	
08:00	도깨비 야시장															
08:30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남겨진 사람들	
09:00										페막프로그램 그랜드 콘텐탈						
09:30										페막프로그램 페막불꽃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



단원미술관이 안산이 낳은 조선시대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예술 탐방프로그램 '2015년도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이하 단원예술여행)을 운영한다.


단원예술여행은 단원 김홍도가 머물렀던 유적지 및 김홍도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을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살아있는 교육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벌써 3년째 운영되는 단원예술여행은 그동안 매 회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모집정원을 조기 마감하며, 단원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는 평을 얻어 왔다. 올해 단원예술여행은 5월 7일부터 9월 10일 까지 봄과 가을시즌에 맞춰 총 6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회차는 김홍도를 비롯해 정선, 심사정 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진경산수화 작품이 전시돼 있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간송문화전 관람과 조선의 궁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도화서 화원들이 생활했던 규장각이 있는 창덕궁 후원을 답사하는 등 단

원이 걷던 궁중길을 따라가 본다. 2회차는 수원화성과 용주사를 답사, 단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조대왕의 예술적 사상과 효심을 생각해보고 독특한 화풍의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탱화의 제작배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꾸며진다. 3회차는 임경업 장군의 초상화 모본이 있는 충주 충렬사와 김홍도가 연풍현감으로 재직했던 동헌과 천주교 연풍성지를 답사 하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단원의 삶을 돌아보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4회차에는 병진년화첩에 있는 산수화의 배경이 된 도담삼봉, 옥순봉, 사인암 등이 있는 단양지역을 답사함으로써 시정이 넘치는 단원 산수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5회차에는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 선배화원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 사생을 떠났을 때 머물렀던 해운정과 2005년 화마로 소실되었던 천년고찰 낙산사 복원의 밑그림으로 사용되었던 금강전도를 따라 관동지역을 답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6회차에는 단원 김홍도가 40세 때 찰방으로 있었던 안동지역을 답사, 당시 김홍



도와 사대부들과의 교유관계를 알아볼 생각이다. 한편 매 회차 탐방후기 공모를 통해 우수 후기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며, 향후 단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단원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회차별 프로그램

회차	일자	프로그램	비고
1회차	5.07(목)	이론 : 진경산수화 - 우리강산 우리그림 관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창덕궁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인원 : 회당 40명 (개인 및 가족단위) ○ 참가비 : 회당 1인 10,000원 (식비, 교통비, 입장료 포함) ※1인 2회차까지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온라인 또는 현금 납부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01-0147-1840-21 (재)안산문화재단 ○ 신청서제출 : 방문접수, 팩스(031-413-5566), 이메일(design1030@naver.com) ○ 문의 : 단원미술관 031-481-0504
2회차	5.14(목)	이론 : 왕의남자, 김홍도 관람 : 안산객사, 수원화성, 용주사	
3회차	5.21(목)	이론 : 음울과 시정이 넘치는 산수화 I 관람 : 충주 충렬사, 탄금대, 수옥폭포	
4회차	8.27(목)	이론 : 음울과 시정이 넘치는 산수화 II 관람 : 도담삼봉, 옥순봉, 사인암	
5회차	9.03(목)	이론 : 천년고찰의 밑그림, 금강전도 관람 : 해운정, 낙산사	
6회차	9.10(목)	이론 : 단원의 사인정신과 사대부와의 교류 관람 : 안동 체화정, 하회마을	

2015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

'8인 초대전'

2015.6.17 ~ 6.23 서울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5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전>이 오는 6월 17일(수)부터 6월 23일(화)까지 6일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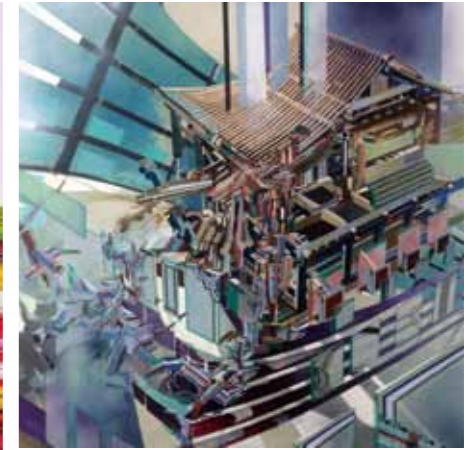
① 강창훈_풍경낚시(Landscape Fishing), Oil on canvas, 116.8×91cm, 2014



② 김보라_꿈꾸다. 알루미늄주물에 채색, 1000x450x70(h)cm, 2015



③ 이해륜_행복(happiness), 19×116.8cm, Oil on canvas, 2014



④ 황원해_Reconstruction, 97x97cm, 2015, mixed media

올해로 다섯 번째 마련되는 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전 서울전시는 그동안 단원미술제를 통해 배출되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망한 수상추천초대작가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또한 이번 전시는 10월경에 있을 변화된 단원미술제의 공모방식소개 및 전시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서 수상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작가 8인을 선정, 단원미술제 프리뷰 전시 콘셉트 및 스토리로 기획하여 선보인다.

풍경과 낚시라는 소재로 인간의 욕망과 꿈, 그리고 사회와 현실에 던져진 현대인의 구원의 징표를 찌로 표현하는 강창훈 작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늘고 뾰족한 핀으로 식물들을 형상화한 작업을 하는 인경 작가, 꿈을 가지고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하는 김보람 작가, 소멸되어 가는 시간이라는 스토리로 폐 종이와 마블링 효과를 이용하여 조각작품 같은 공예작업을 하는 유수연 작가, 가장 최근 단원미술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황원해 작가 등 이들은 모두 단원미술제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8인의 작가들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의 성장과 새로운 변화를 보여 줄 예정이다.

2015단원미술제 수상추천초대작가展

전시기간.

2015. 6. 17 (수) ~ 6. 23 (화) / 6일간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21번지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5층)

참여작가.

초대작가_강창훈, 초대작가_전대숙
추천작가_김보라, 추천작가_이해륜
추천작가_인 경, 추천작가_황원해
수상작가_김태우, 수상작가_유수연

주최.

(재)안산문화재단



⑤ 김태우, (Pool_lay 침범), Korea Ink, Acrylic on Canvas, 30x30cm, 2015




⑥ 인경_잡풀, 90x180, 핀혼합매체, 2014, 부분컷



⑦ 유수연_턱을 고이고 있는 여자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전시구성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존의 1명의 작가 당 1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면 올해 전시에서는 작가의 전반적인 작업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점의 작품을 공간구성으로 기획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10월경에 있을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에서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으며, 현대미술의 다양한 미적세계를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개막식은 6월 17일(수)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단원사업부(031-481-0503)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리뷰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76 공연리뷰
끝내 울컥한 김창완

끝내 울컥한 김창완 “저도 막냇동생 잃고...”

세월호 사건 안산 추모 공연 “언제까지나 꽃 슬프게 볼 수 없어”



▶ 재즈보컬 말로



▶ 김효영 앙상블



▶ 소울지기

정확히 1년하고도 2일 후,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자신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래 불러줄 줄 누가 알았을까. 매년 이맘때쯤 이곳에서 하는 봄맞이 공연이라지만 18일, 그날은 특별했다.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리멤버 포에버(Remember Forever)’ 무대를 재즈 보컬 말로, 가수 김창완을 비롯해 4팀의 뮤지션들이 채웠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등학교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거리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시민 3만여 명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을 때

이곳에서는 묵직한 노래 소리가 1300 객석을 가득 채웠다.

재즈와 국악에 담은 진심, 관객과 하나 돼 울리다

공연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한 공연의 앞부분은 가수 말로와 생황 연주자 김효영이 꾸몄다. 전통 악기지만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생황을 가지고 김효영은 서동요 등의 세 곡을 익숙한 가락으로 연주했다. 첼로와 단소,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욱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재즈 보컬로 한국적 가사와 특유의 음색으로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한 말로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의 6집 앨범 <겨울, 그리고 봄>을 발표한 말로는 당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두 곡의 노래(‘잊지 말아요’, ‘제 자리로’)를 앨범에 실으며 그 아픔을 함께 했었다.

“뜻 깊은 날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말로는 ‘잊지 말아요’와 ‘제 자리로’를 이어 불렀다. 특히 ‘제 자리로’를 부르기 직전 후렴구를 관객에게 알려주며 함께 노래하기를 권했다. 공연 내내 멘트를 자제하는 듯 보였던 말로는 “광화문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안다. 여기 목소리가 그곳에도 들리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객석에 부탁했다. 일부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길 잃은 아이 이제 제자리로 / 떠났던 사람 다시 제자리로 /
불빛 환한 밤 모두 제자리로 / 아픔 없는 밤 모두 제자리로
(노래 '제 자리로' 중)*

이후 말로는 ‘벚꽃지다’를 열창했다. 13년 전 말로 자신의 음악 인생에 방점을 찍게 한 곡이다. 당시 노래는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얻었다. 또 어렵기만 하고 다소 멀어 보였던 재즈 보컬리스트들을 대중과 한층 친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진중하게 관객 마음을 건드리던 말로는 마지막곡 ‘너에게로 간다’를 통해 한층 밝은 분위기를 만들며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끝내 울컥한 김창완, 관객과 함께 열정의 무대 선보여

2부 무대에 오른 김창완 밴드 역시 특별한 인사말 없이 첫 곡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를 선보였다. 반팔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김창완은 무심한 듯 기타를 응시하다가도 객석에 시선을 주며 엄숙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했다.

이어 ‘회상’을 부르던 김창완은 곡이 끝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전 내내 진행된 드라마 <화정> 촬영을 마치고 공연장에 도착한 김창완은 “용인에 있다가 안산 시내에 들어오는데 그 차분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누군가는 잊자고 하는데 그게 잊히겠다. 이 공연을 며칠 앞두고 짧은 글을 적어봤다.”며 작은 종이쪽지를 꺼내 읽어나갔다.



▶ 김창완 밴드

“울해도 어김없이 진달래, 개나리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 만
 발했습니다. 활짝 핀 꽃들이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 같고
 아이들 웃음소리 같아 슬퍼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또 꽃이
 피겠지요. 내년에도 꽃이 피면 아마 또 슬퍼지겠지요. 저도
 막내 동생을 잃고 몇 년 동안 사진을 볼 때마다 노래를 들
 을 때마다 슬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진을 보고 노래
 를 들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고...행복하다
 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꽃들을 슬프게만 볼 수는 없는 일입
 니다. 그 생명의 환희를 분노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 봄꽃들 속에
 서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청춘과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울림 멤버이자 동생인 고 김창익 씨의 사연을 전
 한 뒤 김창완은 ‘노란 리본’을 불렀다. 세월호 사고
 직후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직접 만든 추모곡이다.
 단 4문장으로 이뤄진 단순한 가사지만 김창완은 마
 지막 부분인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를 부를 때 목
 이 메더니 ‘그립다 그립다 노란 리본’이란 가사를 끝
 내 내뱉지 못했다. 목울대가 크게 몇 번 움직였다.
 마지막 곡은 ‘아니 벌써’였다. 직전 감정을 추스르
 며 ‘너의 의미’, ‘중2’를 노래했고 연이어 ‘아니 벌써’
 로 관객과 호흡했다. 담담하게 퇴장하는 김창완 밴
 드를 향해 객석에선 앙코르가 터졌고, 이에 이들은
 ‘개구쟁이’로 화답했다.

“슬픔 이후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가 중요해”

공연 직후 안산 시민들은 공연장 주위에서 기념 촬
 영을 하며 답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동년배들과

함께 공연을 찾은 한 50대 주부는 “조금은 우울한
 마음으로 공연을 봤는데 김창완 밴드를 보면서 마
 음이 한층 밝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 시내의 한 학원에서 일한다는 40대 최연자 씨는
 “내 가족이 사고 희생자는 아니지만 가르치던 학생
 이 세월호에 있었다. 그간 도망만 다니고, 숨어서
 울다가 여기 왔는데 잘 왔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
 을 붉혔다. 최 씨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왔지만 다
 들 희망을 본 것 같다. 뮤지션들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줬다.”며 “여전히 다들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만 있을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면서 문제를 잘 헤
 쳐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늦깎이 학생을 위한 공부방인 안산늘푸른학교를 운
 영하는 정명섭 씨는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이 어떤
 특수성을 갖게 됐는데 자꾸만 우울해지는 건 반대한
 다.”며 “유가족 분들, 그들의 지인들, 또 직접적인 연
 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응어리들이 있다. 이
 젠 서로가 치유를 해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 담당인 오미현 과장은
 “클래식과 국악 공연으로 신춘음악회를 열어오다
 올해는 추모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며, “김창완 씨
 나 말로 씨 모두 세월호 추모곡을 내어 부탁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셨다.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 관련 자원봉사자 분들도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 기사 발췌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받는 사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4 2 5 — 9 0 6

하늘다리

2015 | 05/06 | vol. 48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라디오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현재

총 **366,596,94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안산대학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킵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이시영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중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앤씨커뮤니티케이선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중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교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중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농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쟈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중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최민석, 거품전력(주) 홍희성, 이니티움

햇빛회원

안산도시개발(주)

기쁨회원

라이프스포츠

독자 설문

1. <하늘다리> 05+06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
.....
.....

2. <하늘다리> 2015년 07+08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
.....
.....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
.....
.....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
.....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 :

이메일 :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6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 www.ansanart.com

절취선

